

日本의 經濟學研究와 教育

朴 珍 道*

<目 次>

- I. 머리말
- II. 經濟學研究의 展開와 現狀
- III. 經濟學教育의 實態
- IV. 맷 움말

I. 머리말

오늘날의 일본의 경제학계에는 근대경제학(경끼이)과 마르크스경제학(마루끼이)이 병존하고 있다.⁽¹⁾ <表 1>은 1980년 현재 일본경제학회연합에 가맹하고 있는 학회의 일람표이다.⁽²⁾ ㉑의 경제이론학회와 ⑤의 토지제도사학회는 기본적으로 마르크스경제학의 입장에 선 사람들의 학회이고, ②, ⑯, ⑮, ㉔ 등의 학회에 소속한 연구자의 대부분은 어느 쪽이냐 하면 마르크스경제학의 입장에 선 사람들이다. 그 밖의 대부분의 학회에 있어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몇 할은 마르크스경제학적 입장에 선 연구자가 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일본의 경제학연구자의 반은 아니라고 해도, 반 가까이는 마르크스경제학적 입장에 선 연구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八尾信光(1986, p. 65)]. 서구의 선진국에서는 근대경제학이 주류를 이루고 마르크스경제학은 소수파에 지나지 않는 사실과 대비해 보면, 일본의 경제학계는 국제적으로도 특이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두 개의 경제학은 신분보정이 강한 대학에 본거지를 두고 체제내화되어 있다. 더욱기 양파는 서로 상대를 무시하고, 학문적 긴장감을 결여한 채로 共存(共棲) 하고 있는 기이한 관계에 있다.

경제학은 현실의 경제로부터 직접 간접으로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 忠南大學校 經濟學科 副教授

- (1) 1870년대 초의 한계혁명 이후의(역사학파와 제도학파를 제외한) 非마르크스系의 경제학전체를 「근대경제학」이라고 부르는 용어법은 전세계적인 관행은 아니고 오히려 일본의 특수한 용어법이라 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早坂忠・正村公宏(1974, pp. 4-20) 참조.
- (2) <表 1>의 숫자는 약간 낡은 것인기는 하지만 대체의 경향을 파악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다만 『全國學術研究團體總覽』에 의하면, 「일본경제학회연합」의 가맹 학회 수는 1986년 7월 현재 34개이다. 단 근대경제학의 대표적 학회인 「理論・計量經濟學會」의 회원은 1,660명으로, 그리고 마르크스경제학의 대표적 학회인 「經濟理論學會」의 회원은 1,046명으로 늘어났다.

〈表 1〉 日本經濟學會連合加盟學會一覽(1980年)

學會名	所屬會員數	學會名	所屬會員數
① 金融學會	591	⑦ 日本保險學會	848
② 經濟學史學會	689	⑧ 日本商業學會	550
③ 公益事業學會	298	⑨ 經濟地理學會	590
④ 社會經濟史學會	989	⑩ 亞細亞政經學會	約 600
⑤ 土地制度史學會	約 900	⑪ 經濟理論學會	947
⑥ 日本會計研究學會	約 1,460	⑫ 日本商業英語學會	約 170
⑦ 日本經營學會	1,745	⑬ 日本經營數學會	71
⑧ 日本經濟政策學會	898	⑭ 經營史學會	600余
⑨ 日本交通學會	350	⑮ 日本貿易學會	257
⑩ 日本財政學會	502	⑯ 日本地域學會	389
⑪ 日本統計學會	1,046	⑰ 證券經濟學會	303
⑫ 理論・計量經濟學會	1,493	⑱ 日本人口學會	283
⑬ 日本農業經濟學會	1,100	⑲ 社會主義經濟學會	198
⑭ 國際經濟學會	795	⑳ 組織學會	834
⑮ 日本商品學會	310	㉑ 日本勞務學會	405
⑯ 社會政策學會	730	合計	約 21,000

오늘날의 일본의 경제학계의 현상은 일본경제의 발자취의 역사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의 첫번째의 과제는 근대경제학과 마르크스경제학의 공존이라는 특이한 현상을 명치이후의 일본경제의 발전과 관련해서 해명하는 것이다. 두번째의 과제는 「경제학의 위기」의 일본적 실상과 그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 두 개의 과제는 II節의 일본경제학의 전개와 현상에서 다를 것이다. 이 글의 세번째의 과제는 일본의 경제학계의 특수성(양파의 공존)이 경제학의 교육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교과과정의 검토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네번째의 과제는 일본의 경제학교육의 특질과 문제점을 필자의 경험과 주요 대학의 사례를 통해서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두 과제는 III節의 경제학교육의 실태에서 다를 것이다. IV節의 맷음말에서는 「경제학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두 개의 경제학의 노력을 소개하고, 일본의 역사적 경험과 현상이 우리에게 갖는 含意(교훈)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II. 經濟學研究의 展開와 現狀

1. 明治期의 經濟學—西歐經濟學의 導入과 普及

1) 古典派經濟學의 導入

일본의 경제학은 亞流의 고전파경제학의 해설적 도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막말(1850년대) 서구문명과 더불어 서구경제서가 네덜란드로부터 도입되었고, 明治維新 전년인 1867년

에 영국인 William Ellis의 *Outlines of Social Economy*(1846)가 최초의 경제학 교과서로서 번역 출판된(네덜란드어의 重譯, 번역명 『經濟小學』) 이후 일련의 해설적 교과서가 번역 되었다.

『經濟小學』을 비롯한 해설적 교과서의 도래의 시대가 끝나고 진짜 영국의 고전경제학이 도입되는 것은 明治 10년(1877년)부터 20년대에 걸쳐서이다. 이 시기에 J.S. Mill의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譯名 『獮兒經濟論』), Adam Smith의 『國富論』, Malthus의 『人口論』 등 고전파경제학의 주요 고전이 번역·소개되었다.

그러나 당시는 근대사회의 경제제도가 일본에 정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즉 은행, 기업, 화폐, 시장 등의 제도가 일본 국민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것들을 추상해서 일반화된 개념으로 정식화하는 것은 지난한 일이었다. 대상이 없는 곳에 갑자기 학문적 정보가 들어옴에 따라 그것을 소개하고 번역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또 그것을 읽고 이해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society'에 「사회」라는 말이 정착하기 까지 20여개의 역어의 변천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玉野井芳郎(1974, p. 14)]. 福澤諭吉은 당시의 어려움을 “마치 눈을 모르는 인도인에게 눈의 詩를 짓도록 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였다.

2) 獨逸 歷史學派 經濟學의 導入

영국의 고전파 경제학에 이어 독일의 경제학이 일본에 도입되었다. 일본에는 이미 1881년에 독일학협회가 결성되어 독일의 법률, 정치, 문화 등이 도입되고 있었고, 독일경제학의 영향이 일본에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것은 1887년 이후이다. 1889년에 F. List의 *Das national System der politischen Ökonomie*가 영어판의 증역으로 번역된(번역명 『李氏經濟論』) 이후, Roscher, Hildebrand 등 구역사학파의 원전이 소개되었다. 동시에 19세기 말의 독일의 사회문제(노동문제, 농업문제, 분배문제, 경제의 이중구조 등)의 처리를 들러싸고 발전한 신역사학파의 경제학(Wagner, Brentano 등)도 급속히 보급되었다. 특히 신역사학파는 일본의 근대화가 동종의 사회문제를 배태하기 시작함에 따라 일본 경제학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玉野井芳郎(1974, pp. 61-72)]. 이것은 1873년에 결성된 독일의 「사회정책학회」(Verein für Sozialpolitik)를 모방해서 1890년대에 일본에서도 「사회정책학회」의 결성이 추진된 것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다(제 1회 총회는 1907년).

3) 마르크스主義의 導入

일본의 사회주의는 1880년대의 자유민권운동을 출발점으로 기독교사회주의를 매개로 해서 전파되었고, 그것은 이후고 마르크스주의로 정착되었다.

마르크스주의는 먼저 1900년대초에 片山潛의 『我社會主義』, 幸徳秋水의 『社會主義眞髓』, 堀利彥의 『社會主義綱要』 등 일련의 개설서를 통해 자본주의라고 하는 근대사회에 있어서의 기계의 발명이나 공장제도, 계급의 발생, 노동자의 궁핍, 실업이라는 이른바 자본주의의 모순과 사회주의의 우월성 등 마르크스주의의 기본논점이 소개되고, 동시에 노동가치설을 비롯해 임여가치, 공황, 계급투쟁의 필연성 등 마르크스경제학의 기본이론들이 소개되었다.

한편 마르크스주의의 원전도 1904년 『공산당선언』이 영어판으로부터 중역된 이후, 1907년에 『자본론』 제1권이 번역되는 등 착실히 소개되었다.

4) 經濟學의 大學에의 導入

일본의 근대적 대학의 역사는 1877년에 창설된 東京大學으로부터 시작된다. 당시의 동경대학은 法, 理, 文, 醫의 4학부로 구성되어 있었고, 경제학의 교육과 연구는 이 문학부를 모체로 해서 태어났다. 경제학은 문학부의 제3학년째에 강의되었다[東京大學(1985, 제3편 경제학부 1장)]. 1879년 문학부 제1파의 명칭이 철학, 정치학 및 理財學科로 개칭되면서 경제학은 理財學이라는 명칭으로 모습이 나타난다. 1881년에 문학부 제1파가 철학파와 정치학 및 理財學科로 분리되고, 1885년에는 문학부에 있던 정치학 및 理財學科가 다시 政經學科로 개칭되고 법학부로 편입되었다. 이 법학부 정경학파의 조직은 그 후 오랫동안 지속되고, 이윽고 1919년에 경제학부가 독립하게 된다.

이와 같이 문학부의 정치학 및 이재학파가 법학부로 옮겨지고 다시 법학부로부터 경제학부가 독립하는 과정은 明治부터 大正에 걸친 일본의 근대화와 근대적 학문의 전개를 반영하고 있다. 문학부로부터 법학부로 옮긴 것은 독일의 학풍을 받아서 國法學의 영향이 강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법학부로부터 독립한 것은 경제학이 國法學의 제약을 벗어나서 과학으로서 자립한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大正초기의 자본주의가 가져다 준 사회문제가 배경에 있었다[玉野井芳郎(1974, p. 40)].

2. 戰前期—日本 마르크스學派의 形成과 近代經濟學의 成長

1) 마르크스經濟學의 定着과 學界의 支配

일본에 마르크스경제학이 본격적으로 수용되고 보급되는 것은 제1차세계대전 이후의 시기이다. 1917년의 러시아혁명, 유럽에서의 사회주의운동의 고양과 민주주의의 확대(특히 독일의 사회민주당정부의 성립), 일본 국내의 大正demokrasi라는 개방적 정치사회상황 등을 배경으로 일본의 사회주의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마르크스경제학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확산되면서 일본의 마르크스경제학은 1920년대부터 1930년대에 걸쳐서 제1의 황금기를 맞

이한다. 이 시기의 일본의 마르크스경제학의 연구는 전체적으로 해외에서의 성과를 수입해서 흡수하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전개되었다.

첫째로, 마르크스학파의 고전이나 해외에서의 연구가 활발하게 번역출판되었다. 예를 들면 1920~1924년에 『자본론』全3권이 완역출판되고, 1926~1927년에는 『레닌저작집』全10권도 출판되었다. 그리고 1927~1933년에는 세계 최초로 『마르크스 앵겔스집집』(全27권 31책, 별권 1책)이 간행되었다. 이 외에도 당시까지의 해외의 유력한 마르크스학파의 주요 저작이 거의 모두 번역출판되었다.

둘째로, 마르크스경제학의 기초이론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가치론과 지대론에 관한 대규모 논쟁이 연구의 심화·발전을 촉진했다. 가치론논쟁은 19세기 말의 Böhm-Bawerk-Hilferding의 논쟁을 답습하는 형태로 노동가치론의 현실적 타당성, 『자본론』제1권의 노동가치설과 제3권의 생산가격규정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행해졌고, 지대론 논쟁은 제3권의 농산물의 시장가치의 한계원리와 제1권의 평균원리에 의한 노동가치설과의 관계, 차액지대의 원천 등을 중심으로 행해졌다. 이 외에도 이 시기에 일본의 마르크스학파는 화폐론, 축적론, 재생산표식론, 공황론, 제국주의론 등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했다. 이 시기말에는 “일본의 마르크스경제학은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최고의 수준에 캐치업을 완료했다”[伊藤誠(1988a, pp. 184-5)]고 평가되고 있다.

세째로, 『자본론』의 경제이론에 의거해서 일본자본주의의 역사적 특수성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것은 이론바 일본자본주의의 논쟁으로 발전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일본의 마르크스경제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일본자본주의의 논쟁은 일본사회주의운동의 전략논쟁과 깊이 관련되어 있고 보다 직접적으로 정치적·실천적 의의를 갖고 있었다. 이 논쟁의 과정에서 일본의 거의 모든 마르크스경제학자가 강좌파와 노농파로 나누어지고 직접간접으로 논쟁에 참가한다(물론 각파의 내부에 다시 여러 가지 입장이 대립하고 있지만). 강좌파는 일본공산당 및 그 계통의 학자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주로 『日本資本主義發達史講座』(1932~1933)를 통해 이론을 전개했기 때문에 강좌파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이에 대해 노농파는 공산당에서 이달해서 주로 잡지 『勞農』에서 논진을 편 동인이나 동조자로 구성되었다. 논쟁의 중심점은 강좌파가 일본농업에 있어서의 반봉건적 지주제의 지배와 그것을 고유의 물질적 기초로 하는 천황제국가권력의 절대주의적 성질을 강조하고 당면의 혁명을 「사회주의혁명으로 급속히 전화하는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2단계 혁명 노선」)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노농파는 지주제의 봉건적 성질과 천황제의 절대주의적 성질을 부정하고 지주의 부르조아화와 국가권력에 있어서의 제국주의 부르조아지의 패권을 강조하고

당면의 혁명의 성격을 「민주주의 혁명의 임무를 수반하는 사회주의 혁명」(「1단계 혁명 노선」)이라고 규정한 것에 있었다.⁽³⁾ 당시의 영세농민의 열악한 생활수준과 수확의 5할에 달하는 고액소작료의 존속과 천황제권력의 권위주의적·군사적 성격은 강좌파의 견해에 적합한 것으로 보였고, 이 강좌파의 견해는 일본 마르크스주의자의 사이에서 정통적 입장으로 받아들여지고, 경제학자의 다수파를 형성하였을 뿐 아니라 역사학, 정치학, 문학 등에도 광범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논쟁은 어느 파의 승리라고 할 것 없이 1936년이후의 국가권력의 강력한 탄압으로 주요 논자들이 모두 검거됨으로써 끝나고 말았다.

2) 近代經濟學의 紹介와 摸索

1930년대가 되면 당시의 서구 근대경제학의 주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캠브리지학파, 로잔느학파, 오스트리아학파의 주요이론이 일본에 거의 모두 소개되고, 一橋大, 京都大, 東京大 등을 중심으로 근대경제학의 연구가 활발히 전개된다. 특히 로잔느학파인 숨페터의 이론은 그의 일본인 제자들과 그 자신의 訪日을 통해 당시의 일본경제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마샬-피구-로버트슨으로 이어지는 캠브리지학파의 이론은 당시의 일본경제학에 충분히 흡수되지 못했다[玉野井芳郎(1974, pp. 164-91)].

그러나 戰前의 일본의 근대경제학은 아직 정착 이전의 모색단계에 있었다. 전전에 마르크스경제학이 일본마르크스학파를 형성할 정도로 정착된 반면에 근대경제학은 정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근대경제학이 국제적 수준에서도 본격적인 발전이 1930년대부터 시작되고 그 발전에 관한 전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전전의 일본에서는 극히 소수의 학자에 한정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도 있지만, 주된 이유는 당시의 일본의 경제사회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천황제를 포함한 당시의 일본사회가 당면하고 있던 농촌문제, 노동문제, 경제의 이중구조 등의 해명(解説)에 있어서 근대경제학보다는 마르크스경제학이 보다 유용성을 지니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이 마르크스경제학의 진영에 암도적으로 많은 연구자를 동원시켰던 것이다. 또한 마르크스주의는 위험한 사상으로 탄압되고 마르크스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개인의 全存在를 겨는 것과 같은 상황하에서 근대경제학자의 마르크스주의 비판은 다른 의미에서 용이한 일이 아니었고, 그것이 또 근대경제학의 현실분석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玉野井芳郎(1974, pp. 173-4)].

3. 戰後期—마르크스經濟學의 昏迷와 近代經濟學의 開化

1) 마르크스經濟學의 復興과 昏迷

戰전후 사상·학문의 자유가 보장됨에 따라 일본의 대학에 전시중의 탄압으로 추방되었

(3) 일본자본주의 논쟁에 대해서는 小山弘健(1954), 大内力(1962), 歷史科學協議會(1976) 참조.

던 많은 마르크스경제학자가 복귀하고, 일본의 노동운동·사회운동이 활력을 회복하는 가운데서, 일본의 마르크스경제학은 젊은 세대의 두터운 지지를 얻으면서 제2의 황금기를 맞이한다. 당초 마르크스경제학의 재활성화는 전전의 논쟁을 계승해서 강좌파와 노농파의 논쟁재개를 하나의 동력으로 해서 전진되었다.

다수파를 점한 강좌파는 공산당의 정치전력의 변화에 따라 일본자본주의 분석을 변전시켰다. 특히 소련의 코민포트의 지시에 의해 작성된 일본 공산당의 1951년의 신강령에 의거해서, 강좌파의 논객 대부분이 전전의 영광(『일본자본주의 발달사 강좌』)의 부활을 노리면서 『日本資本主義講座』(1953~1955년, 이른바 新講座)에 결집했다. 이 「신강좌파」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전전에 「구강좌파」가 강조한 일본자본주의 특유의 후진성이 전후에도 온존 계승되고 있고(예를 들어, 농지개혁 이후에도 반봉건적 토지소유의 존속), 더욱이 그것이 미국에의 예속이라는 새로운 조건 하에서 재편되었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무장투쟁에 의한 「민족해방민주혁명」의 전략노선을 채택한 「신강령」의 영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농민을 조직하는 정치노선으로서도 유효하게 가능하지 못하고 山村工作隊의 모험주의적 전술 등으로 농민운동이나 사회운동에도 파괴적 영향을 주고 파탄했다. 1955년에는 「신강령」이 폐기되고 1956년부터 스탈린비판이 시작됨으로써 결정적으로 약화되어 갔다. 「신강좌파」의 좌절이 혁명정당의 특정의 전략방침을 옹호할 목적으로 사회과학적 연구를 종속시킨 점 그리고 스탈린주의의 무조건적 옹호를 전제로 한 세계정세평가에 의존한 교조주의적 태도 등에 기인한다는 사실은 그 후의 일본의 마르크스경제학의 연구에 커다란 교훈으로 되었다[早坂忠・正村公宏(1974, pp. 35-7)].

노농파는 일본에 있어서의 자본주의 발전의 일반적 경향을 강조하고, 전전부터 전후에 걸친 일본경제의 연속성 등 나름대로의 수미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본자본주의의 특수성에 충분한 고찰을 미칠 수 없었던 전전의 노농파의 방법론적 한계는 전후에도 극복되지 않았고, 자본주의 발전의 일반적 법칙을 사회의 양극분해에 의한 자본의 집적 집중과 노동자의 궁핍화 경향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무매개적으로 일본자본주의의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고도성장의 과정에서 노동자 대중의 생활실감에 맞지 않게 되고 영향력을 잃어갔다.

강좌파와 노농파의 좌절이라는 상황 하에서 일본의 마르크스경제학은 강좌파와 노농파의 · 연구축적을 기반으로 방법론, 기초이론, 실증연구에 있어서 질적으로 새로운 발전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이나 하듯이 작품을 받으면서 등장한 것이 스탈린주의가 횡행하고 있던 시대에 있어서도 독창적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던 宇野弘藏이다. 宇野는

넓은 의미에서 노농파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지만, 노농파에 대해서 일정한 비판을 가하면서, 「원리론」, 「단계론」, 「현상분석」이라는 독자의 경제학연구체계(이른바「宇野 3단계론」)를 구축하였다. 이후 宇野學派는 일본의 유력한 마르크스경제학으로 발전하지만 최근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宇野學派의 해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분열과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降旗節雄(1983)].

어쨌든 일본의 경제학은 한편에서 자본주의의 예상을 초월한 발전(특히 일본의 「전전」에는 꿈에도 생각치 못한 고도성장), 다른 한편에서 사회주의제국에 있어서의 자유억압과 경제적 곤란의 증대라는 현실을 앞에 두고, 그 이론체계, 분석용구, 장래의 전망 등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이 후술하는 바와 같은 마르크스경제학의 諸派가 오늘날 일본에 난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近代經濟學의 開化와 「危機」

「근대경제학」의 일본적 용법(역사학파와 제도학파를 제외한 非마르크스계의 경제학 전체를 치칭함)을 받아들인다면, 전후의 일본의 근대경제학은 케인즈붐으로 시작되었다. 케인즈이론은 전전부터 소개되고 있었고,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이 번역된 것도 1941년 말이다. 이 역서가 1년간 9천부가 팔릴 만큼 당시에도 케인즈에 대한 관심은 높았다. 그러나 『일반이론』에 대한 전전의 관심은 국민소득론적 측면보다는 주로 이자의 유동성선호설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저축·투자의 국민소득결정이론으로서의 『일반이론』의 해석이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1948~1949년경이다.

케인즈붐이 일단락된 1950년경부터 1955년까지 일본의 근대경제학은 힉스의 『가치와 자본』과 『경기순환론』, 사무엘슨의 『경제분석의 기초』, 랭개의 『가격신축성과 고용』이라는 네 권의 저서를 축으로 선화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早坂忠・正村公宏(1974, pp. 20-32)]. 이 과정에서 종래 방정식과 미지수의 수를 해아릴 뿐인 번색한 수학유희라고 조소되는 경향이 있던 왈라스이래의 일반균형 이론이 현실시장의 움직임을 해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서 재평가를 받게 된다.

케인즈혁명의 정착, 힉스, 사무엘슨 등의 소화가 일단 끝난 1955년경부터 투입산출분석, 선형계획, 게임이론을 중심으로 한 선형경제학의 봄이 일어나고, 한때는 선형경제학이 아니면 경제학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풍미했다.

1960년대는 성장이론이 지배한 시기이다. 전후 폐허화한 일본경제는 한국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활력을 회복하고 1950년대말에는 고도성장이 정착하게 된다. 경제현실의 변화를 배경으로 경제학계는 성장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되고, 이 시기(적어도 1960년대까지)에는

고도성장론이나 안정성장론이나 하는 차이는 있었지만 경제성장 그 자체는 오로지 바람직한 것; 자랑할 만한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지배적이었다. 경제성장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더불어, 명치이후의 일본경제의 성장론적 분석, 성장문제를 둘러싼 당면의 일본경제의 진단과 처방전, 전후의 경제성장과정의 분석 등 실증적 연구가 1950년대부터 경제학의 중심적 지위를 점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경제 및 세계경제에 대한 낙관적 분위기는 1970년대초의 심각한 경제적 제문제(국제통화위기, 스테그플레이션, 남북문제, 「풍요속의 빈곤」, 환경파괴, 도시문제, 인간소외)에 봉착하여 일변하고, 현실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되면서 낙관적 성격의 신고전파종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경제학의 위기」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퇴진 GNP론」 등 경제성장에 대한 평가도 일변했다.⁽⁴⁾ 물론 경제학의 위기의식은 단지 일본만의 현상은 아니고, 로빈슨여사의 1971년 말의 강연『경제학의 제 2의 위기』가 단적으로 말해주듯이 전세계적 현상이었지만, 일본의 근대경제학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 시야의 협소성으로 인해 보다 커다란 좌절을 겪게된다.

이상 패전후부터 1970년대초까지의 일본의 근대경제학의 전개를 거칠게 나루어 보았는데,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경제학의 개화는 「전후개혁」(「재벌해체」, 「농지개혁」, 「노동민주화」)에 따른 경제적 구조의 변화를 배경으로 해서 가능했다. 근대경제학은 일반적으로 제도적 문제나 사회구조를 여전으로 간주하고 그 가운데서 메카니즘의 분석을 문제시하는데, 전후개혁으로 전전이래의 경제구조적 문제가 상당히 불식됨으로써 제도 또는 사회구조와 어느 정도 독립해서 경제메카니즘이 경제메카니즘으로서 관찰될 수 있는 틀이 형성됨으로써 근대경제학의 도구가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早坂忠・正村公宏(1974, pp. 191-3)].

둘째로, 근대경제학의 개화의 가운데서 「관청에코노미스트」가 형성되었다. 명치초의 식산통업정책 이래 위로부터의 근대화가 행해진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경제관료의 영향력이 강하였지만, 전후 그 일부가 관청에코노미스트로 전화하게 된 배경에는, 유도적 형태이기는 하지만 경제의 계획화가 진행되고, 케인즈이론이나 레온티에프의 체계 등에 의해서 경제학을 현실분석이나 예측·계획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다[早坂忠・正村公宏(1974, pp. 64-9)].

(4) 1970년 중엽에 『朝日新聞』에 연재된 「くたばれ GNP」論 이후, 宇澤弘文의 「混迷する近代經濟學の課題」(『日本經濟新聞』1971년 1월 4일), 『經濟學との對話—社會科學の總合化は可能か』(東洋經濟新聞社 編, 1972) 등 일본에 있어서의 경제학의 위기를 지적하는 일련의 저술이 발표되었다.

셋째로, 일본의 근대경제학은 「미국의 경제학에 휘둘림을 당했지만」[宇澤弘文(1972)], 그 전체에 의해서 휘둘림을 당한 것은 아니고, 주류파인 「에코노메트리카」에 의해서 휘둘림을 당했다[早坂忠・正村公宏(1974, pp. 150-4)]. 예를 들어 미국경제학의 또 하나의 전통인 갤브레이스류의 제도학파는 일본경제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 결과 일본의 근대경제학의 시야가 추상이론편중 또는 수학만능시의 형태로 협약화되었다. 이는 마르크스경제학으로부터 근대경제학의 형식성, 기술성, 비역사성, 비사회과학성이란 말로 비난을 받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필요한 경제적 의미내용을 그의 공식에 부여하는 것 없이 단지 수리경제학의 형식적 우아함에 취해 또 논리의 엄밀성과 定義의 구분의 정치함에 대해서 집요하게 주의하는 응용수학자」를 야유할 때 「일본의 경제학자」라는 말이 사용될 정도로 되었다[玉野井芳郎(1974, p. 229)].

4. 經濟學研究의 現狀

1) 마르크스經濟學의 現狀

일본은 경제대국임과 동시에 마르크스경제학의 대국이기도 하다. 그러나 강좌파계 정통파 마르크스경제학의 좌절이후 오늘날의 일본의 마르크스경제학은 심각한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많은派로 분열되어 상호간에 근친증오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高須賀義博(1985, pp. 65-75)에 의하면 현재의 일본의 마르크스경제학은 다음과 같은二流六派로 분류되고 있다.

먼저 커다란 흐름을 형성하는 「논리역사설」과 「논리설」의 방법론상의 대립을 보면, 「논리역사설」은 「논리적인 것」은 「역사적인 것」에서 우연을 제거한 것이라고 하는 엥겔스의 사고를 마르크스경제학의 기본적인 방법으로 취하는 설이다. 이 설은 이론경제학(『자본론』)을 자본주의의 생성·발전·소멸의 전과정을 포괄하는 장대한 체계로 보고 있다. 이 설은 카우츠키, 힐퍼딩, 스탈린에 의해서 주장되었고⁽⁵⁾, 이 설을 신봉하는 「정통파」가 「구정통파」로 불리우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스탈린비판이후 이 학설의 이론적 재검토의 가운데서 부상한 것이 「논리설」이다. 「논리설」은 『자본론』을 철저한 논리적 정합성을 지닌 하나의 체계적 경제이론으로서 이해하려는 입장으로 『자본론』에 산재하는 역사적 서술을 단순한

二 流	六 派
논리역사설	정통파(舊), 시민사회파, 宇野派(세계자본주의파)
논 리 설	정통파(新), 宇野派(본류), 모델·플라톤파

(5) 대표적인 것은 소련과학원경제학연구소 『經濟學教科書』(경제 학교과서 간행회 역, 合同出版, 1955)이다.

「예증」으로 파악하고 있다. 「논리설」에 따르면 이론경제학의 대상은 자본주의의 理念像의 분석 즉 자본주의가 가장 전형적으로 발전한 산업자본주의 단계의 경제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한정된다.

高須賀의 분류법에 따라 일본의 마르크스경제학의 각파의 특질을 간단히 살펴 보자. 다수파를 겸하고 있는 것은 역시 「정통파」인데, 이파는 마르크스에 충실하려고 하는 심정을 공통으로 갖고 있을 뿐으로 그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론적 특징을 지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高須賀는 이파를 「宇野派」「市民社會派」「모델·플라톤파」와 스스로를 구별하는 마르크스경제학 殘差그룹이라고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市民社會派」는 『자본론』을 「市民社會의 批判的自己了解」의 저술로서 이해한다[平田清明(1972)]. 이파는 시민사회의 「자기노동에 기초한 소유」로부터 자본체경제의 「타인노동에 기초한 소유」에로의 소유법칙의 변화를 중시하고, 이 변화를 기축으로 해서 자본주의의 轉倒性을 체계적으로 해명하려고 한 점에 독창성이 있다. 「시민사회파」의 경제학은 노동자 자주관리형 사회주의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에서도 특징적이다.

「宇野派」는 말할 필요도 없이 宇野弘藏의 독창적인 『자본론』 해석에 기초한 이론체계를 신봉하는 그룹이다. 宇野(1962)의 이론체계는 「원리론」, 「단계론」, 「현상분석」의 이론바 3 단계론으로 성립하고, 宇野(1950)의 「원리론」은 「순수한 자본주의」를 상정하고 「유통론」, 「생산론」, 「분배론」의 三편 구성에 의해서 그것을 원리적으로 해명하려고 한 점(「자본론의 純化」)에 특징이 있다. 宇野자신은 「원리론」의 완성을 목표로 하였고, 자본주의의 사적 발전의 분석에 관해서는 「단계론」「현상분석」에 말김으로써 이 분야의 이론은 완성된 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宇野派」는 宇野의 원리론이 분석대상으로 하는 「순수한 자본주의」는 「관념적 구축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배척하는 「세계자본주의파」의 등장으로[岩田弘(1964)] 분열하기 시작해 오늘날에는 해체의 위기를 맞고 있다.

「모델·플라톤파」는 플라톤적 이념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경제학자로서 모델을 구축해서 수량적 의존관계를 분석할 뿐 아니라, 현대자본주의를 대상으로 해서 「플라톤적 이념의 세계」가 이론적으로 구축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제학자의 그룹이다[置鹽信雄(1977)]. 이파의 특색은 현대자본주의의 제문제를 원리적으로 해명하려고 하는 자세에 있다. 따라서 현대자본주의의 제문제는 원리적으로는 해명 불가능하고, 「현상분석」의 과제로서 구체·개별적으로 밖에 해명 할 수 없다고 하는 宇野派와 날카롭게 대립한다.

일본의 마르크스경제학이 침착한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脫마르크스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1960년대 후반의 서구에서의 「마르크스 르네상

스」⁽⁶⁾와 대비해서 고찰하기로 한다.

첫째로, 전전의 마르크스경제학이 일본자본주의의 현상분석에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것에 반해서, 전후의 마르크스경제학에서는 현상분석이 무기력화하고, 자본론해석학, 자본론성립사연구, 학설사연구가 비정상적으로 비대화하였다. 『자본론』 연구의 최종목적이 『자본론』을 논리적으로 발전시켜서 현대자본주의를 분석하는 것에 있다면 해석학의 비대화는 수단이 목적으로 전도된 감이 있다. 또 마르크스해석의 폭이 서구에 비해서 대단히 좁고, 「마르크스로부터의 인용을 가지고 논증에 대신하는」 연구스타일이 아직도 뿌리깊게 남아 있다.

둘째로, 마르크스경제학의 體制內化가 이론연구와 현상분석에 있어서 활력을 잃고 있는 위기적 상황을 위기로써 자각치 못하게 하고 있다. 이는 서구의 「마르크스 트네상스」가 마르크스주의를 완전히 배제하려고 한 체제파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발(「지성의 반란」)의 가운데서 일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세째로, 오늘날의 일본의 마르크스경제학은 근대경제학파의 학문적 긴장관계를 결여하고 있다. 과거에는 兩경제학은 서로 「반동의 모임이라든가 무능자의 집단이라고 다투었지만」, 이제는 서로 무시하고 매도와 멸시조차 없는 無交流상태에 있다. 이것이 마르크스경제학의 활력을 잃게한 하나의 요인이다. 이는 서구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전통적 경제학(특히 신고전파경제학)의 수업을 철저히 받고 그것에 반역하는 형태로 마르크스경제학을 추구한 것과 대조적이다.

네째로, 교조주의의 폐해가 여전히 강하다. 전후 일시적으로 일본의 마르크스경제학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스탈린교조주의는 스탈린비판이후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일본경제학계에서 소멸되지만, 그 스탈린주의가 자기비판을 포함한 비판적 총괄의 형태로 극복된 것이 아니고 자연소멸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사실상은 체제내화한 강단 마르크스경제학내에 온존 되게 되었다. 그리고 마르크스의 물오류를 신봉하는 마르크스교조주의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서구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마르크스해석파는 다르다.

(6) 선진제국의 아카데미즘에서의 마르크스경제학의 완전거부상태는 1960년대에 끝나고 60년대 후반부터 이론바 「마르크스 트네상스」 현상이 발생한다. 이 「마르크스 트네상스」는 1968년의 프랑스의 5월 혁명이나 베트남反戰運動의 발전을 배경으로 가속화되었다. 예를 들어 1960년에 발족한 영국의 「사회주의경제학자회의」(CSE)는 1978년에는 회원수 1,300명으로 성장했고, 1968년에 결성된 미국의 「래디칼 경제학자연합」(URPE)은 1975년에는 2,200명의 회원을 거느리는 학회로 성장했다. 伊藤誠(1988, pp. 194-5), 高須賀義博 (1985, 제 2 장 「마르크스 트네상스」) 참조.

2) 근대경제학

케인즈비판이후 근대경제학의 세계적 조류는 합리적 기대가설(Rational Expectations Hypothesis), 통화주의자(Monetarist), 서플라이사이드경제학(Supply Side Economics) 등의 다양한 형태를 취한 「새로운」 고전파경제학의 융성이 있다[宇澤弘文(1988)]. 이 「새로운」 고전파경제학은 당연히 즉각 일본에 수입되어 정착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에서는 케인저안의 뿌리 깊은 영향으로 인해 아직 미국에서와 같은 영향력을 일본 경제학계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새로운」 고전파경제학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케인즈 경제학의 부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⁷⁾

오늘날의 일본의 근대경제학은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였을 뿐 아니라(근대경제학의 대표적 학회인 「이론계량경제학회」의 회원은 1800인에 달함),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높은 이론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근대경제학자는 학계 뿐 아니라 관청, 은행, 연구기관 등에 광범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의 근대경제학은 독자적인 파라다임을 형성하고 있지 못하고 여전히 수입경제학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미국에 비해서 경제학의 생산성은 여전히 낮다. “일본의 경제 자체의 번영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제학은 침체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미국경제는 위기에 처해 있지만 미국의 경제학은 활기를 띠고 있다”[齊藤精一(1980)]는 지적은 매우 시사적이다.

일본의 근대경제학이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현상에 대해 東京大學 교수를 역임하고 1985년부터 미국의 예일대학의 교수로 있는 浜田宏一(1988)은 미·일 간의 경제학연구의 환경(제도)의 차이를 그 주된 이유로 들고 있다. 미국에서는 학술업적(국제적인 전문학술잡지의 논문수로 평가됨)이 승급(태뉴어 제도), 급료, 연구비, 수업부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전문학술지의 논문심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창성이다. 이것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학술업적이 승진(사실상의 종신고용제), 급료, 연구비의 중액 등과 거의 무관하다. 즉 경제학의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학술잡지의 논문발표를 통한 인센티브가 적은 것은, 경제학자로서 성공하는 것은 정부의 심의회의 위원이 되거나 저널리즘에서 유명해지는 것인듯한 환상을 낳는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양국의 문화적·역사적 배경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⁸⁾ 미국의 제도를 일본에 도입한다고(도입하기도 어렵겠지만) 극복될 수 있는 것은 아

(7) 1988년 11월 7일호의『エコノミスト』(副題, 「世界의 경제학·일본의 경제학—현대경제학은 세기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참조.

(8)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나인과의 동질성·협조성이 중요시되는 것에 대해서(文化의 齊一性) 미국에서는 개성이 존중되고 강조된다. 또 일본어의 표현은 애매한 「인상에 호소하는 언어」가 많이 사용되어, 과학적 분석에는 부적당하다.

이라고 浜田宏一 교수는 말한다.

III. 經濟學教育의 實態

1. 概況

일본의 고등교육은 대학(원), 단기대학(2년제), 고등전문학교(중학교 졸업후 5년제) 등의 교육기관에서 담당한다. 이 중에서 고등전문학교는 공학계전문학교이기 때문에 경제학교육이 독립단위로서 설치되는 것은 단기대학 이상에서이다. 대학의 경제학과는 경제학부, 법경학부, 정경학부, 정치경제학부 등의 다양한 명칭의 학부에 설치되어 있으나 거의 대부분은 경제학부에 소속되어 있다(예를 들어, 1987년에 경제학과의 약 9할이 경제학부에 소속). 그리고 대학원의 경제학전공과 경제학연구과, 정치경제학연구과, 국제정치경제학연구과 등에 소속되어 있으나 약 97%는 경제학연구과에 속한다. 단기대학은 상학·경제학과라는 명칭을 취하고 있다.

경제학교육의 현황의 고찰에 앞서 경제학을 포함한 사회과학계의 학생추이를 개관해 보기로 한다. <表 2>에 의하면 사회과학계의 학생은 지난 20여년간 절대수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학부의 사회과학계의 학생은 1980년 이후 감소경향조차 보이고 있다.

대학의 경제학부, 대학원의 경제학연구과, 단기대학의 상학·경제학과를 중심으로 경제학교육의 개황을 보면 <表 3>과 같다(이하의 자료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文部省 大臣官房調査統計課, 『1987年度 學校基本調査報告書』에 의함). 단 <表 3>의 경제학부에는 경제학과 이외에도 경영학과 또는 상학과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경제학연구과에는 경제학전공 이외에 경영학전공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경제학교육의 실태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위의 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일본의 경제학교육

<表 2> 사회과학계열의 학생수 추이

大 学(학부)	大 学 原		단기대학(본과)
	석사과정	박사과정	
1960	257,970(42.9)	2,370(28.5)	894(12.0)
1970	562,162(41.8)	4,607(16.6)	1,727(13.0)
1980	704,737(40.5)	4,050(11.3)	2,430(13.3)
1987	700,750(38.8)	4,988(9.2)	2,533(10.3)

資料：文部省, 『文教統計要覽』, 1988年度。

〈表 3〉 단기대학이상의 경제학교육의 개황(1987년)

	대 학(학부)			대학원(연구과)			단기대학(학과)		
	계	국공립	사립	계	국공립	사립	계	국공립	사립
학부, 연구과 또는 학과수	135	39	96	70(49)	23(13)	47(36)	119	21	98
학생 수	233,787	36,801	196,986	1,074 (682)	387 (416)	687 (266)	35,598	6,507	29,901
교원 수	4,305	1,403	2,902	—	—	—	1,146	200	946
교원 1인당 학생수	54.3	26.2	67.9				31.1	32.5	31.6

註: 1) 대학원의 ()밖의 숫자는 석사과정이고, ()안의 숫자는 박사과정.

2) 단기대학의 학생수의 계가 일치하지 않음(원인불명).

3) 교원수는 본무자에 한함. 따라서 교양학부 또는 연구소 소속의 경제학관련 교원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은 대학교육(4년제)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학부생 100명당 대학원생의 수는 0.75인에 지나지 않고, 단기대학의 학생수는 4년제대학의 15.2%에 불과하다. 둘째로, 대학원교육에 있어서는 국공립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고, 특히 박사과정은 약 6할 이상을 국공립에서 교육하고 있다(위의 표에는 나타나있지 않지만 국공립의 가운데서는 국립이 암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째로, 대학의 경제학교육에 있어서 사립대학이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지만(경제학부생의 약 85%를 포함), 교원 1인당 학생수(단, 표의 주에서 보듯이 이 숫자의 절대치는 중요하지 않음)에서 보듯이 사립대학의 교육환경은 국공립대학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다.

다음으로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유학생의 실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 일본대학의 외국인학생은 1960년의 4,703인에서 1970년 10,471인, 1980년 15,008인, 1987년 26,570인으로 급증하고 있다. 유학생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아시아가 85.9%(그 외 北美 5.6%, 유럽 3.1% 등)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의 유학생의 거의 대부분은 한국, 중국, 대만 등 한자문화권이며 과거에 일본의 식민지(또는 반식민지)였던 나라의 유학생들이다. 한국인유학생은 대학에 7,857인(전체 외국인유학생의 47.6%)으로 제1위를 차지하고 있고, 대학원에 2,310인(전체 외국인유학생의 28.5%)으로 중국(대만포함)의 3,703인 다음으로 2위를 점하고 있고, 단기대학에는 1,299인(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66.2%)이 등록되어 있다. 외국인유학생의 전공분야별 분포를 보면, 대학의 경우 사회과학(35.2%), 인문과학(24.0%), 공학(13.5%), 보건(13.4%), 예술(3.8%), 교육(3.5%) 등등의 순으로 되어있는 데 반해, 대학원의 경우는 공학(30.9%), 사회과학(20.9%), 인문과학(13.8%), 농학(11.4%), 보건(8.6%), 교육(6.2%) 등등의 순으로 되어있다. 참고로 한국인유학생의 전공별 현황은 〈표 4〉와 같다.

〈表 4〉 한국인 일본유학생의 전공분야별 현황(1987년)

합계	학부, 연구과, 본과에 재적 중인 자										연구생기타
	계	인문	사회	공학	이학	농학	보건	예술	교육		
대 학	7,857	7,373	1,293	2,923	916	97	142	1,315	303	165	484
대 학 원	2,310	1,833	273	408	516	90	211	142	45	98	477
단기 대 학	1,299	1,263	335	133	70	—	8	106	72	146	36

註: 1) 가정학, 상선학 등은 표에서 생략.

2. 教育制度

1) 大學

(1) 教育機構 및 運營

일본의 대학교육은 「학부」(전공에 따라 교육연구상 조직됨)라는 독특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학부의 종류는 문학, 법학, 경제학, 상학, 이학, 의학, 치학, 공학 및 농학의 각 학부, 기타 학부로서 적당한 규모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文部省令, 「大學設置基準」, 제 2 조 2항). 학부에는 각각의 전공분야를 교육연구하는데 필요한 조직으로서 학과 또는 과정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경제학관계 학부 설치기준 요항」(제 2 조 1항)에는 경제학관계의 학부, 학과의 조직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i) 경제학부로서 조직하는 경우: ㄱ, 경제학부 경제학과, ㄴ, 경제학부 경제학과, 경영학과 또는 상학과 ii) 상학부로서 조직하는 경우: ㄱ, 상학부 상학과, ㄴ, 상학부 상학과, 경영학과 iii) 경영학부로서 조직하는 경우: ㄱ, 경영학부 경영학과, ㄴ, 경영학부 경영학과, 상학과, iv) 복합학부로서 조직하는 경우: ㄱ, 법경학부 법학과, 경제학과, ㄴ, 정경학부 정치학과, 경제학과. 일본의 명문대학의 실제의 예를 보면, 東京大學은 경제학부(경제학과, 경영학과), 京都大學은 경제학부(경제학과, 경영학과), 一橋大學은 경제학부(기초과정, 응용과정), 상학부(경영학과, 상학과), 早稻田大學은 정치경제학부(정치학과, 경제학과), 상학부, 慶應義塾大學은 경제학부(경제학과), 상학부(상학과)로 편성되어 있다.

대학은 그 교육연구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과목제 또는 강좌제를 두고, 이에 필요한 교원을 두게되어 있다. 학과목제란 교육상 필요한 학과목을 정하고 그 교육연구에 필요한 교원을 두는 제도이고, 강좌제란 교육연구상 필요한 전공분야를 두고 그 교육연구에 필요한 교원을 두는 제도이다.

대학에 개설해야 할 수업과목은 그 내용에 따라 일반교육과목, 외국어과목, 보건체육과목, 전문교육과목으로 나눈다(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교육의 기초로 되는 기초교육과목을 개

설할 수 있음). 졸업을 위해서는 대학에 4년이상 재학하고 일반교육과목(인문, 사회 및 자연의 세분야)의 36단위, 외국어과목의 8단위, 보건체육과목(강의 및 실기)의 4단위, 전문과목의 76단위를 포함하여 124단위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教科課程

경제학과의 학생은 졸업을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교육과목, 외국어과목, 보건체육과목,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의 학과목 124단위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반교육에 해당하는 과목은 교양과정(1, 2학년)에서 이수하고, 전문교육에 해당하는 과목은 3학년 이후에 이수한다. (단, 전문교육과목의 일부는 2학년과정에서, 일반교육과목의 일부는 3학년 이후에 이수하기도 한다.)

「경제학관계학부 설치기준 요항」에 따르면 경제학과의 전문교육과목은 〈表 5〉와 같이 예시되어 있다. 각 대학은 이 예시에 준거해서 특성에 따라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여기서는 지면의 제약상 東京大學 경제학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다른 대학은 〈附表 1〉 참조). 〈表 6〉은 1988년도의 수업과목이다. 수업과목은 크게 기본과목과

〈表 5〉 經濟學科의 전문교육과목 예시

學 科 目	授 業 科 目
主要學科目으로서 開設하는 것	
理 論 經 濟 學	◎ 經濟原論, ◎ 經濟學史, 經濟學方法論, 計量經濟學, 數理經濟學, ◎ 景氣循環論(經濟變動論), 厚生經濟學, 計劃經濟論, 國民所得論, 產業連關論
經 濟 史	◎ 經濟史總論(經濟史概論, 經濟史), ◎ 日本經濟史, 西洋經濟史, 東洋經濟史, 日本經濟思想史(東洋經濟思想史)
經 濟 政 策	◎ 經濟政策總論, 農業經濟(政策)論, 工業經濟(政策)論, 交通經濟(政策)論, 商業經濟(政策)論, ◎ 國際(世界)經濟論, 國際金融論
財 政 學·金 融 論	◎ 財政學總論, 財政學各論(豫算論, 租稅論, 公債論), ◎ 地方財政論, ◎ 金融論, 財政制度論, 財政·金融政策論
統 計 學	◎ 統計學總論, 數理統計, 經濟統計, 社會統計
社 會 政 策	◎ 社會政策總論, 勞動經濟論, 社會保障論, 人口論
[演 習]	◎演習
[外 語 講 讀]	◎外國經濟書講讀
關連學科目으로서 開設하는 것	
商 廉 學	商學總論, 保險論
經 營 學	經營學總論
會 計 學	會計學原理
法 學	憲法, 行政法, 民法, 商法, 勞動法, 經濟法, 國際法
社 會 學	社會學

註: 1) ◎는 필수과목으로 하고 ()의 수업과목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表 6〉東京大學 經濟學部의 授業科目(1988年度)

科目	科 目 名	單位數	科目	科 目 名	單位數
基本科目	經濟理論 A(I)	4	自由科目 (1)	情報斗決定	2
	經濟理論 A(II)	4		理史清產係統計計計論	4
	經濟理論 B(I)	4		經營管營業營使業營務理	4
	經濟理論 B(II)	4		企經勞叶經財管經	4
	經濟統計	4		各會各會各會各會各會	各2~4
	經濟統營	4		處理學史略營營查	2
	經濟會計	4		各2~4	2
	經濟學史	4		各2~4	2
	經濟政融	4		各2~4	2
	經濟鐵濟	4		各2~4	2
自由科目 (1)	經濟組經	4	自由科目 (2)	各2~4	各2~4
	經濟動經	4		各2~4	2
	經濟通際	4		各2~4	2
	經濟本經	4		各2~4	2
	經濟代統	4		各2~4	2
	經濟現統	4		各2~4	2
	經濟數經	4		各2~4	2
	經濟價格	2		各2~4	2
	經濟恐懼	2		各2~4	2
	經濟經價	2		各2~4	2
自由科目 (3)	經濟地財	2	自由科目 (3)	各2~4	各2~4
	經濟金低	2		各2~4	2
	經濟國貿	2		各2~4	2
	經濟小公	2		各2~4	2
	經濟西經	2		各2~4	2
	經濟日本	2		各2~4	2
	經濟學計	2		各2~4	2
	經濟統計	2		各2~4	2
	電算機斗	2		各2~4	2
	電算機外	2		各2~4	2

科 目	科 目 名	單位數	科 目	科 目 名	單位數
自由科目 (4)	數 學 I	2	自由科目 (4)	商 商 產 業 法 (2)	4
	數 學 II	2		商 法 (3)	2
	民 法 (1)	4		業 法	4
	民 法 (2)	2		政 治 學	4
	行 政 法	4		日 本 政 治 史	4
	勞 動 法	4		自由科目 (5)	
	商 法 (1)	2		特 別 講 義	各 2~4

資料：『東京大學經濟學部要覽』，1988년。

자유과목으로 나누어진다. 기본과목은 경제학의 기초적인 사고방식과 지식에 관한 것이고, 8과목중 7과목을 제 3년차 전반까지 이수하여야 한다. 이는 실질적인 필수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제원론은 마르크스경제학(경제이론 A)과 근대경제학(경제이론 B)을 모두 이수하도록 되어있다. 자유과목(1)·일본경제론 및 자유과목(2)은 기본과목에 준하는 것으로, 경제학과 학생은 전자로부터 24단위이상(1주 1시간 15주를 가지고 1단위로 함), 경영학과 학생은 후자로부터 20단위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자유과목(3), (4), (5)는 隨意性이 높은 과목이고, 학생은 각각의 관심에 따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이상을 모두 합쳐서 졸업에 필요한 취득 단위는 88단위이상(졸업논문 4단위 포함)으로 되어있다. 이 가운데 演習(세미나)은 특히 중요시되고 있고, 교관 전원이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연습을 담당하고 있고, 학생은 지망하는 연습에서 밀도높은 학습과 개별연구를 한다. 또 학생은 경제학부에 진학할 때, 각자의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소속학과를 결정할 수 있고(입학시에는 경제학과 경영학과의 구별없이 教養學部 文科 第2類로 입학), 더욱이 진학 후에도 학년도 초에 학과를 변경할 수 있다. <表 7>에서 보듯이 진학시에 학생들의 경제학과 선호가 현저하다.

2) 大學院

(1) 教育機構 및 運營

대학원의 구성단위는 연구과로 되어있고, 경제학교육은 경제학연구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학연구과는 몇 개의 전공으로 나누어진다(<表 8>)。

<表 7> 東京大學 經濟學部의 學生定員 및 在學生數(1988.4.1 現在)

學 科	區 分		定 員	進學定數	在 學 生 數		
	入 學	總 數			3 年次生	4 年次生	計
經 濟 學 科	245人	465人			340人	348人	688人
經 營 學 科	140	280			36	62	98
計	385	745		390人	376	410	786

資料：<表 6>과 동일

〈表 8〉 경제학연구과의 전공과정

東京大學	京都大學	一橋大學	早稻田大學	慶應義塾大學
이론경제학·경제사학 전공(이론경제학코스, 통계학코스, 경제사학코스) 응용경제학전공 경영학전공	이론경제학·경제 사학전공 경제정책학전공 현대경제학전공 경영학전공	이론경제학 및 통 계학전공 경제사 및 경제정책전공	이론경제학·경제 사전공 응용경제학전공	이론경제학전공 경제사전공 경제정책전공

資料：각 대학의 대학원편람

대학원의 과정은 대학에 따라 박사과정 만을 두고 석사과정없이 5년일관제로 운영하는 대학(東京大學), 박사과정을 전기 2년의 과정(修士課程)과 후기 3년의 과정(博士後期課程)으로 운영하는 대학(京都大學, 一橋大學, 早稻田大學), 修士課程과 박사과정을 별도로 운영하는 대학(慶應義塾大學) 등이 있다. 5년일관제인 동경대학은 석·박사과정의 구분이 없으므로 일반적 의미의 박사과정에 진학하기 위해 별도의 입학절차가 필요없지만(다만, 다른 대학으로부터 박사과정으로의 편입학은 가능), 다른 대학의 경우는 박사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修士課程의 수료후에 소정의 입학시험을 치루어야 한다.

(2) 教科課程

각대학의 박사과정의 제도에 따라 대학원 경제학연구과의 수업과목이 수사과정과 박사과정에 별도로 개설되기도 하고 구분되지 않기도 하지만, 수업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면의 제약상 동경대학 대학원 경제학연구과의 사례만을 살펴 보기로 한다(타대학의 수업과목은 〈附表 2〉 참조). 〈表 9〉에서 보듯이 수업과목은 대단히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각 과목의 담당교관이 매년 강의제목을 바꾸어서 수업을 한다. 따라서 학생은 동일 교관의 동일 수업과목(가령 응용경제학 I)을 매년 수강해도 무방하다. 또 학생은 각자 자기의 전공(가령 이론경제학전공)을 갖지만 전공에 따른 수업과목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박사과정의 수료를 위해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表 9〉의 수업과목 중에서 30단위 이상을 취득해야 하지만, 그것을 반드시 자기 전공의 수업과목에서 이수할 필요는 없다. (물론 실제로 거의 대부분은 자기 전공에서 30단위 이상을 취득하지만 제도상의 제약은 없다.) 이 점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모두 두고 있는 대학의 경우 석사과정에 한해서 자기 전공의 소정의 단위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 대학(가령 一橋大學은 석사졸업에 필요한 32단위 가운데서 16단위, 京都大學은 30단위 가운데서 8단위), 또 석사과정에 한해서 동일과목을 다시 이수해도 단위를 인정해주지 않는 대학(가령 早稻田大學) 등과 다른 점이다. 또 동경대학

〈表 9〉 東京大學 大學院 經濟學研究科 授業科目表

理論經濟學・經濟史學專攻

理論經濟學코스

科目番號	授業科目	講義題目	科目番號	授業科目	講義題目
501-01	理論經濟學(A) I	베른슈타인研究	501-26	理論經濟學演習	國際金融論
501-02	理論經濟學(A) II	世界恐慌論	501-27	理論經濟學專攻指導	
501-03	理論經濟學(A) III	經濟學史와 原理論	501-28	理論經濟學專攻指導	
501-04	理論經濟學(A) IV	國際金融와 政治經濟學	501-29	理論經濟學專攻指導	
501-05	理論經濟學(B) I	미시經濟學	501-31	理論經濟學專攻指導	
501-06	理論經濟學(B) II	거시經濟學	501-32	理論經濟學專攻指導	
501-07	理論經濟學(B) III	財政理論	501-33	理論經濟學專攻指導	
501-08	理論經濟學(B) IV	金融理論와 應用	501-34	理論經濟學專攻指導	
501-09	理論經濟學(B) V	現代比較經濟政策論	501-35	理論經濟學專攻指導	
501-10	經濟學說史 I	學說史	501-36	理論經濟學專攻指導	
501-11	理論經濟學特論 I	개임理論과 經濟行動	501-37	理論經濟學專攻指導	
501-12	理論經濟學特論 II	產業組織	501-38	理論經濟學專攻指導	
501-13	理論經濟學特論 III	企業과 契約의 理論	501-39	理論經濟學專攻指導	
501-14	理論經濟學特論 IV	情報와 거시 經濟分析	501-40	理論經濟學專攻指導	
501-15	理論經濟學特論 V	規制의 經濟學	501-42	理論經濟學專攻指導	
501-16	理論經濟學演習	經濟動學	501-43	理論經濟學專攻指導	
501-17	理論經濟學演習	現代經濟理論 및 그 應用	501-44	理論經濟學專攻指導	
501-18	理論經濟學演習	信用論의 諸問題	501-45	理論經濟學專攻指導	
501-19	理論經濟學演習	資本主義發展段階論	501-46	理論經濟學專攻指導	
501-20	理論經濟學演習	國家獨占資本主義	501-47	理論經濟學專攻指導	
501-21	理論經濟學演習	經濟學의 方法	501-48	理論經濟學專攻指導	
501-22	理論經濟學演習	영국의 經濟와 經濟學	501-49	理論經濟學專攻指導	
501-23	理論經濟學演習	世界經濟와 現代資本主義	501-50	理論經濟學專攻指導	
501-24	理論經濟學演習	再生產論	501-51	理論經濟學專攻指導	
501-25	理論經濟學演習	經濟體制論	501-52	理論經濟學專攻指導	
			501-53	理論經濟學專攻指導	

統計學코스

502-01	社會統計 I	社會統計論	502-08	經營統計 II	Financial Economics
502-02	社會統計 II	統計制度論	502-09	統計學輪講	
502-03	數理統計 I	統計的決定理論	502-10	統計學演習	數理統計演習 I
502-04	數理統計 II	統計的推測理論	502-11	統計學演習	數理統計演習 II
502-05	數理統計 III	經濟學・經營學을 위한統計的方法 I	502-12	統計學演習	統計的意思決定理論
502-06	數理統計 IV	經濟學・經營學을 위한統計的方法 II	502-13	統計學演習	時系列分析
502-07	經營統計 I	統計的意思決定理論과 그 應用	502-14	統計學演習	情報와 거시 經濟分析

科目番號	授業科目	講義題目	科目番號	授業科目	講義題目
502-15	統計學演習	統計的檢定理論	502-20	統計學專攻指導	
502-16	統計學專攻指導		502-21	統計學專攻指導	
502-17	統計學專攻指導		502-22	統計學專攻指導	
502-18	統計學專攻指導		502-23	統計學專攻指導	
502-19	統計學專攻指導		502-24	統計學專攻指導	

經濟史學コース

503-01	經濟史 I	財閥에서企業集團으로	503-10	經濟史專攻指導	
503-02	經濟史 II	農地改革史	503-11	經濟史專攻指導	
503-03	經濟史 III	農村過剩人口의 比較經濟史	503-12	經濟史專攻指導	
503-04	經濟史 IV	現代프랑스經濟史	503-13	經濟史專攻指導	
503-05	經濟史資料研究 I	日本經濟史資料研究	503-14	經濟史專攻指導	
503-06	經濟史特論 I	比較經濟史研究와 막스웨버	503-15	經濟史專攻指導	
503-07	經濟史演習	日本經濟史	503-16	經濟史專攻指導	
503-08	經濟史演習	勞動問題	503-17	經濟史專攻指導	
503-09	經濟史演習	日本經濟史	503-18	經濟史專攻指導	
			503-19	經濟史專攻指導	

應用經濟學專攻

504-01	應用經濟學 I	現代의 農政	504-20	應用經濟學演習	現代國際勞動力移動
504-02	應用經濟學 II	日本經濟의 國際比較	504-21	應用經濟學演習	國際關係企業史
504-03	應用經濟學 III	現代財政論	504-22	應用經濟學演習	印도經濟論
504-04	應用經濟學 IV	勞使關係의 國際比較	504-23	應用經濟學演習	勞動組合理論史
504-05	應用經濟學 V	雇用·失業問題	504-24	應用經濟學專攻指導	
504-06	應用經濟學 VI	現代英國經濟	504-25	應用經濟學專攻指導	
504-07	應用經濟學 VII	中國經濟의 諸問題	504-26	應用經濟學專攻指導	
504-08	應用經濟學 VIII	現代中國經濟論	504-27	應用經濟學專攻指導	
504-09	應用經濟學 IX	勞動市場의 階層性論	504-28	應用經濟學專攻指導	
504-10	應用經濟學 X	產業組織	504-29	應用經濟學專攻指導	
504-11	應用經濟學特論 I	規制의 經濟學	504-30	應用經濟學專攻指導	
504-12	應用經濟學特論 II	歷史로서의 世界經濟	504-31	應用經濟學專攻指導	
504-13	應用經濟學演習	第三世界의 政治經濟學	504-32	應用經濟學專攻指導	
504-14	應用經濟學演習	現代의 勞使關係	504-33	應用經濟學專攻指導	
504-15	應用經濟學演習	日本의 財政政策	504-34	應用經濟學專攻指導	
504-16	應用經濟學演習	戰後日本經濟	504-35	應用經濟學專攻指導	
504-17	應用經濟學演習	現代經濟理論 및 그應用	504-36	應用經濟學專攻指導	
504-18	應用經濟學演習	勞動問題	504-37	應用經濟學專攻指導	
504-19	應用經濟學演習	社會主義經濟論	504-38	應用經濟學專攻指導	
			504-39	應用經濟學專攻指導	
			504-40	應用經濟學專攻指導	
			504-41	應用經濟學專攻指導	

科目番號	授業科目	講義題目	科目番號	授業科目	講義題目
504-42	應用經濟學專攻指導		504-43	應用經濟學專攻指導	

經營學專攻

505-01	企 業 經 濟	企業銀行의 經濟分析	505-10	經營 史 演 習	產業考古學의 利用方法
505-02	組 織 行 動	現代企業의 戰略과 組織	505-11	會 計 學 演 習	會計測定과 業績評價
505-03	勞 使 關 係	勞使關係의 國際比較	505-12	經營學 專攻指導	
505-04	日 本 經 營 史	勞務管理史研究	505-13	經營學 專攻指導	
505-05	經 營 科 學	統計的意思決定理論과 그 應用	505-14	經營學 專攻指導	
505-06	經 營 學 演 習	情報시스템과 組織管理	505-15	經營學 專攻指導	
505-07	經 營 學 演 習	消費者파ณ·데이터의 分析	505-16	經營學 專攻指導	
505-08	經 營 學 演 習	Financial Economics	505-17	經營學 專攻指導	
505-09	經 營 學 演 習	계임理論과 經濟行動	505-18	經營學 專攻指導	
			505-19	經營學 專攻指導	
			505-20	經營學 專攻指導	

은 5년간 20단위에 한해서 학생의 「자유연구」를 인정하고 있다.

(3) 學位制度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에는 經濟學修士(석사)와 경제학박사 두 종류가 있고, 박사에는 이론박사와 과정박사와 논문박사의 두종류가 있다.

먼저 「과정박사」는 i) 3년이상(수사과정 통산 5년이상) 재학하고 ii) 소정의 단위를 취득하고(가령 東京大學 50單位以上, 一橋大學 52單位以上) iii) 필요한 연구지도를 받고 iv) 박사논문의 심사 및 최종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된다. 단 재학기간에 대해서는 대학에 따라서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一橋大學은 「우수한 연구업적을 올렸다고 연구과위원회에서 인정된 자는 박사후기과정에 2년이상 재학하면 충분하다」고 하고 있고, 早稻田大學은 「우수한 연구업적을 올린 자는 당해연구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대학원 박사과정에 3년(수사과정을 수료한 자는 당해과정의 2년의 재학기간을 포함) 이상 재학하면 충족된 것으로 한다」. 그리고 在學年限(가령 東京大學은 7년, 一橋大學은 수사과정 및 박사후기과정 통산 10년, 早稻田大學은 박사후기과정 6년. 어느 경우도 휴학기간은 제외)을 초과하여 논문을 제출한 경우는 「과정박사」에 포함되지 않고, 후술하는 「논문박사」로 분류된다.

「논문박사」는 「본 대학대학원의 박사과정을 마치지 않은 자라도, 논문을 제출해서 그 심사 및 시험에 합격하고, 또 전공학술에 관해 본 대학대학원의 박사과정의 교육과정을 마치

고 학위를 수여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넓은 학식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여 할 수 있다」(東京大學 學位規則)는 제도로서 모든 대학이 채택하고 있다.

수사학위는 i) 대학원에 2년이상 재학하고 ii) 소정의 단위(京都大學과 早稻田大學은 30 단위이상, 一橋大學은 32단위이상)을 취득하고 iii) 필요한 연구지도를 받고 iv) 수사논문의 심사 및 최종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한다. 수사과정의 在學年限은 일반적으로 4년(휴학 기간 제외)으로 되어있다. 단 5년일 관계를 채택하고 있는 동경대학은 수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후 재학기간이 1년 9개월에서 2년 9개월까지의 사이에 수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日本의 經濟學教育의 特質과 問題點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의 경제학교육의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마르크스경제학과 근대경제학의 교육이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균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사회의 보수화에 따라 마르크스경제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저하함에 따라 학부의 교과목은 근대경제학 우위의 방향으로 균형이 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동경대학의 경우 아직도 교과목은 균형을 취하고 있지만 60년대초까지 학부 학생들의 압도적 다수가 마르크스경제학의 연습(세미나)에 경사되어 있었던 것에 반해 오늘날에는 금융·재정·국제경제 등의 연습에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다[東京大學(1985, p. 242)]. 그렇지만 대학원에서는 마르크스경제학에의 관심이 별로 저하하고 있지 않다[伊藤誠(1988b, pp. 2-3)].

둘째로, 독일의 영향을 받아 일찍부터 연습제도가 도입되었고(동경대학은 1882년), 오늘날 연습제도는 특히 중요시되고 있다. 학생은 3학년에 진학하면 각자의 관심에 따라 교관의 연습에 참가한다. 연습은 철저한 소인원교육으로(학부 3, 4학년만이 대상) 일반적으로 주 2시간 특정전공분야에 대한 깊은 교육이 가능하다(가령 宇澤弘文教授의 演習테마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제도에 있어서의 동학적 불균형과정의 이론적 분석」).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의 경우 자기가 앞으로 전공할 분야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을 연습을 통해 갖출 수 있다. 학생은 졸업논문에 대한 지도를 받는 것은 물론 교수와의 인간적 교류, 친구와의 교

〈表 10〉 대학(원)의 입학정원

	東京大學	京都大學	一橋大學	早稻田大學	慶應義塾大學
학부(경제학과)	385(245)	240(150)	285(285)	1,100(720)	1,200(1,200)
석사과정	—	52	52	80	70
박사과정	53	?	30	40	15

註: 1) 학부의 ()의 숫자는 경제학 전공자의 입학정원

〈表 11〉 경제학연구과의 입학자수이

	東京大學(박사과정)			京都大學(수사과정)		
	입학정원	지원자	합격자	입학정원	지원자	합격자
1983년	53인	106인	9인	40인	67인	16인
1984년	53	97	13	40	68	12
1985년	53	92	24	40	64	16
1986년	53	90	16	40	72	20
1987년	53	110	19	52	105	36

제, 자치활동의 장소로서 연습의 단위를 활용한다.

세째로, 대학교육은 대량교육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대학원교육은 소수정예주의를 취하고 있다(〈表 10〉 참조).

더욱이 〈表 11〉에서 보듯이 대학원의 경우 실제로는 입학정원에 훨씬 미달하는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네째로, 대학원교육에 있어서는 학생의 자주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학원수업은 일반적으로 강의식이 아닌 세미나식으로 진행되고, 세미나에서의 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고, 학생은 주체적인 연구자로서 교수와 대등하게 논의를 전개 한다. 이것은 일본의 대학의 박사과정이 「전공분야에 관해서 연구자로서 자립해서 독창적 연구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연구능력 및 그 기초로 되는 풍부한 지식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즉 교육자의 양성보다는 연구자의 양성에 교육의 중점이 두어진다. 학생의 자주성은 단위(학점)의 취득에서도 나타난다. 학생은 지도교수의 세미나에 계속 참가하면서 자신의 선호에 따라 전공분야에 집중적으로 학점을 취득기도 하고 또는 다양한 분야의 학점을 취득하기도 한다. 그리고 대학원생의 연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자주적 커리큘럼」의 운영을 「자유연구」(東京大學) 또는 「자주세미나」(一橋大學) 등을 통해 연간 4단위의 학점내에서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학생의 發意에 기초해서 경제학연구과위원회가 위촉하는 비상근강사가 담당하는 연습에 참가하는 것」이지만, 동경대학에서는 학생들만의 세미나도 인정하고 있다.

다섯째로, 과정 그 자체보다는 학위논문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 점은 특히 박사과정에 있어서 그리하다. 박사과정에서도 일반적으로 소정의 학점(3년간 20단위 이상)을 이수할 것이 요구되지만 그 부담은 상대적으로 가볍고 논문작성에 주력한다. 京都大學의 박사과정에서는 종래의 단위제도를 폐지하고 지도교관의 지도에 따라서 학위논문의 집대성에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

〈表 12〉 경제학박사 학위취득자의 추이

	東京大學		京都大學	
	과정 박사	논문 박사	과정 박사	논문 박사
1979년	0인	1인	0인	3인
1980	0	1	0	3
1981	0	4	0	0
1982	1	8	0	1
1983	2	3	0	1
1984	2	4	0	4
1985	4	3	1	13
1986	10	5	1	10
1987	3	7	?	?
1988	4	3	?	?

註: 1) 東京大學의 경제학연구과의 1963년 4월 이후 1989년 3월까지의 과정박사의 취득자 총수는 48명이고 논문박사의 총취득자는 108명이다.

이상 일본의 경제학교육의 특질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그 최대의 문제점은 박사과정의 形骸化라고 할 수 있다. 즉 박사과정입학자에 비해서 박사학위 취득자의 절대수가 적을 뿐 아니라 기간내에 박사논문을 제출해서 과정박사로 되는 자의 수가 적다(〈表 12〉). 박사과정의 재학년한을 초과해서 논문을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논문박사로 됨)이다. 이것은 文部省 뿐 아니라 대학당국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그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교육제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이 용이하지 않은 듯하다.

이 점과 관련해서 대학원교육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박사과정을 마치고도 취직이 되지 않는 광의의 오비·닥터(O.D) 문제가 심각화되고 있다. 동경대학의 경우 1960년대까지는 이른바 입도선배(과정을 수료하기 전에 취직계약을 맺음)가 행해질 정도로 취업에 문제가 없었으나 고도성장의 종언과 더불어 대학원생의 취업사정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박사과정 재적 3년을 초과한 在籍 O.D수는 1968년에 14명(총재적자의 10%)에서 1971년에는 26명(동 15%), 1974년에는 31명(동 20%), 1977년에는 40명(동 28%)로 급증하고 있다[東京大學(1985, p. 284)].

IV. 맷 음 맙

수입학문으로 시작된 일본의 경제학은 오늘날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실을 보면 근대경제학은 여전히 수입학문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특히 미국에 대해서 수입초과), 마르크스경제학은 활력을 잃고 있다. 더욱

이 근대경제학, 마르크스경제학을 불문하고 급속히 변화한 경제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한 「경제학의 위기」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또한 근대경제학은 지나치게 계량화, 수식화됨으로써 그리고 마르크스경제학은 『資本論』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양경제학은 학생들에게 경제적 현실로부터 유리된 감을 주고 매력을 잃고 있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70년대 이후 근대경제학과 마르크스경제학의 양진영에서 활발히 모색되고 있다. 우선 근대경제학에서는 래디컬에코노믹스, 소시오에코노믹스, 경제인류학, 내부조직의 경제학, 엔트로피의 경제학, 역사주의경제학 등 주류파경제학에 대한 「周緣」으로부터의 비판이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다[中村達也(1988, pp. 214-21)]. 그리고 마르크스경제학내부에서는 기초이론과 현상분석의 유기적 관련, 새로운 사회주의상의 확립 등이 모색되고 있고, 근대경제학의 최근의 문제의식이나 성과를 어떻게 비판 내지 흡수이용할 것인가가 과제로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에는 어떻게 하면 근대경제학과 마르크스경제학이 무교류 내지 대립(이데올로기의 영역에서의 기계적 대립)의 상태를 지양하고, 공통의 이론적 광장에서 공통의 언어로 실질적으로 대립하면서 상호침투하는 대화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⁹⁾

경제학의 수입, 마르크스경제학의 저배, 근대경제학의 개화, 마르크스경제학과 근대경제학의 공존과 무교류, 최근의 두 개의 경제학의 대화 등 일본경제학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대단히 많다. 예를 들어 최근에 우리사회에서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주장되고 있는 정치경제학(마르크스경제학)의 복권(부흥) 현상에 대해 주류경제학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 할 것인가? 戰前의 일본경제학이 마르크스경제학에 의해 주도된 주요한 이유가 「軍事的 半農奴制的 資本主義」라고까지 불리워졌던 戰前 일본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질에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한국의 마르크스경제학의 부흥도 「대외종속성」과 「국내적 불평등」이라는 경제적 모순과 정치적 억압구조를 기초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마르크스경제학은 배척(탄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대학과 학회 등에서 그 정당한 시민권이 주어지고 공통의 토론의 장에서 그 유효성이 논해져야 한다.

끝으로 경제학교육과 관련해서는 일본에서는 지난 1985년부터 「경제학교육연구회」가 결성되어 대학교육관계자는 물론 중등교육이나 사회인교육 등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개별적인 교육실천의 성과를 토대로 경제학교육의 목표·내용·방법·제도 등에 관해서 전국적 규모에서 종합적으로 탐구하고 있다.⁽¹⁰⁾ 이러한 모임이나 그 연구성과는 우리의 경제학교육의 개선에 참고로 될 것이다.

(9) 최근의 대표적인 성과는 根岸隆・山口重克(1984).

(10) 그 연구성과는 經濟學教育研究會, 『經濟學教育』으로 매년 간행되고 있음.

〈附表 1-1〉京都大學 經濟學部 授業教科目表

【一般教育科目】

人文科學系

哲學	倫理學	心理學	社會學	宗教學
藝術學	論理學	教育學	史學概論	國史學
東洋史學	西洋史學	人文地理學	世界史	文化人類學
東洋社會思想史	西洋社會思想史	文學	日本文學	音樂
國語國文學	漢文學			

社會科學系

法學	日本國憲法	政治學	經濟學	社會統計學
心理學	社會學	教育學	史學概論	國史學
東洋史學	西洋史學	人文地理學	文化人類學	東洋社會思想史
西洋社會思想史	生活科學			

自然科學系

自然科學	數學	物理學	近代物理學	化學
生物學	地學	自然人類學	工業概論	生活科學

外國語科目

英語	獨逸語	프랑스語	러시아語	中國語
----	-----	------	------	-----

保健體育科目

保健理論	體育理論	體育實技
------	------	------

【專門教育科目】

専門教育科目에 속하는 必須科目, 選擇必須科目, 選擇科目은 다음과 같다.

必須科目（經濟學科, 經營學科共通）

外國經濟書講讀				
選擇必須科目（經濟學科, 經營學科共通）				
經濟原論	金融論	工業經濟論	世界經濟論	經濟政策論
統計學	財政學	社會政策論	經營學原理	會計學原理
商業論	交通經濟論	情報處理論	憲法	行政法第一部(總論)
刑法第一部(總論)	國際法第一部(紛爭處理法)		稅法	勞動法
民法第一部(總則)	民法第二部(物權)	民法第三部(債權)	商法第一部(總則), 政治原論	어음) 政治機構論
商法第二部(會社)	商法第三部(商行為, 海商)		行政學	西洋法制史
法社會學	美國法	英國法		

選擇必須科目（經濟學科）

經濟學史	農業經濟論	經濟史	計劃經濟論	社會思想史	計量經濟學
------	-------	-----	-------	-------	-------

選擇必須科目（經營學科）

經營學理論	經營史	會計시스템	經營數學	管理會計論
-------	-----	-------	------	-------

選擇科目（經濟學科, 經營學科共通）

經濟原論各論	統計學各論	勞動經濟論	經營分析論	金融論各論
財政學各論	財政政策論	地方財政論	外國為替論	勞動管理論
都市經營論	世界經濟論各論	社會思想史各論	證券經濟論	經營財務論
日本經濟史	經濟變動論	財務會計論	保險論	東洋經濟史
數理經濟學	會計監事論	銀行論	西洋經濟史	經濟哲學
原價計算論	生產管理論	經濟政策各論	國民經濟論	마아카리論
日本經濟論	情報經營論	組織經濟論	서비스經濟論	國際會計論
國際マ아카리練習	國際經營史	公共經濟學	情報處理各論	基礎經濟理論

資料：京都大學 經濟學部, 『授業計劃及び講義概要』, 1989.

〈附表 1-2〉 一橋大學 經濟學部의 授業科目

【經濟原論部門】

經濟學概論第一 價值論・再生產論 經濟哲學	經濟學概論第二 經濟變動論	微視經濟學 貨幣的 經濟論	巨視經濟學 社會主義經濟學	現代理論經濟學 經濟學史
-----------------------------	------------------	------------------	------------------	-----------------

【經濟統計學部門】

數理統計 經濟數學	經濟統計 基礎數學	應用統計 計算概論	計量經濟學 計量情報論	計量經濟分析
--------------	--------------	--------------	----------------	--------

【公共經濟學部門】

經濟計劃論 地方財政論	公共經濟學	公共서비스論	財政學	豫算政策
----------------	-------	--------	-----	------

【經濟政策部門】

經濟政策 勞動經濟論	教育政策 經濟開發論	國際經濟學 農業政策	國際貨幣經濟論	產業經濟論
---------------	---------------	---------------	---------	-------

【經濟地理學部門】

經濟地理學	環境經濟論	經濟立地論	社會資本論
-------	-------	-------	-------

【地域經濟部門】

日本經濟第一 南方아시아經濟第二	日本經濟第二 各國經濟事情	東洋經濟	南方아시아經濟第一
---------------------	------------------	------	-----------

【經濟史部門】

日本經濟史第一 西洋經濟史第二	日本經濟史第二 現代經濟史	東洋經濟史第一 經濟史特殊問題	東洋經濟史第二 文明史	西洋經濟史第一
--------------------	------------------	--------------------	----------------	---------

【部門外講義】

特別講義：日本의 經濟	外國人講師特別講義
-------------	-----------

資料：一橋大學 後期『學生便覽』，1989。

〈附表 1-3〉 早稻田大學 政治經濟部 經濟學科의 授業科目

區分	學科目	區分	學科目	區分	學科目
A 群	理論經濟學 I 經濟學史 統計理論 日本經濟史 西洋經濟史	B 群	練習 計量經濟學 勞動經濟學 農業經濟學 產業組織論 流通經濟論 日本經濟論 中國經濟論 國際金融論 財政學各論 財政學各論 地方財政學 社會政策 經濟地理學 國際經濟學 經濟政策	C 群	民法 國際政治學 比較政治制度論 日本政治史 行政法總論 地方自治論 經濟數學 麥斯哥理論 社會調查 商法
	理論經濟學 II 貨幣理論 現代經濟學說 社會主義經濟學 財政學 社會政策 經濟地理學		現代政治學說 都市問題 麥斯哥理論 勞動法 어음·手票法		
	國際經濟學 經濟政策				
B 群	經濟統計 現代日本經濟史 現代西洋經濟史 交通經濟學 日本經濟思想史 經營學 會計學 金融經濟學 經濟學研究	C 群	政治學原論 憲法 行政學 政治學史 西洋政治學史 社會學原理 近代社會思想 社會心理學 麥斯哥發達史 簿記	D 群	經濟學外國書研究 I 經濟學外國書研究 II 經濟學外國書研究 III

資料：早稻田大學 政治經濟學部，『學部要項』，1989。

〈府表 1-4〉慶應義塾大學 經濟學部의 授業科目 (1989)

種類	系列	授業科目表	種類	系列	授業科目表	
必須語學	1101 1102 1103 1104	英語 獨逸語 立場△語 獨逸語	特 殊 科 目	2523	信用理論 土地所有論 資金循環分析 資源論 現代經濟史 現代經濟史 美國經濟史 現代獨逸社會史 近世日本經濟史 東洋經濟史 計劃經濟論 近代市民社會論 日本經濟學史 方法論을 위한 論理學 日本近代社會經濟思想史 東歐·러시아社會經濟思想史 日本經濟思想史 現代金融論 日本貿易論 國際金融論 貿易政策 日本의 金融制度 美國의 金融制度 開發經濟學 社會福祉論 地域經濟네이터分析 I 地域經濟네이터分析 II 日本勞動運動史 英國勞動運動史 勞使關係論 謄記 都市社會學 情報經濟論 情報論	
基礎教育	1401	數學 I 統計學				
保健體育	1201 1202	保健衛生 體育理論 基本體育 選擇體育				
一般教育科目	人文科學 社會科學 自然科學 自由研究	2301 2302 2303 2305 2306	哲學 論理學 倫理學 科學概論 文化人類學 宗教學 歷史 文學 言語學 音樂 美術	2301 2302 2303 2305 2306	2523	2523
專門必須科目		1501	經濟原論 I 經濟原論 II 經濟原論 III 一般經濟史	2531	民法 I 民法 II 商法 I 商法 II 勞動法 會計學 經營學 他學部設置의 專門教育科目	
基本科目	經濟理論 計量經濟 經濟史 經濟政策 學史·思想·方法 財政·金融 國際經濟 日本經濟 勞動經濟 產業經濟 社會經濟	2501 2502 2503 2504 2505 2506 2507 2508 2509 2510 2511	價格理論 經濟變動論 國民所得論 獨占資本主義論 經濟統計 計量經濟學 日本經濟史 西洋經濟史 經濟政策總論 現代資本主義論 社會主義經濟論 經濟學史 社會思想 社會科學方法論 財政論 金融論 世界經濟 國際貿易 日本資本主義發達史 現代日本經濟論 社會政策 勞動經濟論 工業經濟論 產業社會學 人口論 經濟地理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110 2111 2112	英語 獨逸語 프랑스語 中國語 스페인語 러시아語 國語 朝鮮語 라틴語 그리스語	2531
特殊科目	2521 2520 2519 2518	英書講讀 獨書講讀 佛書講讀 中國書講讀	自 由 科 目	3509	48單位의範圍內에서 履修하는 下記設置의 授業科目 • 經濟學部設置의 自由科目 • 他學部設置의 一般教育科目 및 自由科目 • 言語文化研究所 特殊講座 • 新聞研究所設置科目 • 語學視聽覺教育研究室 設置講座 • 情報科學研究所 設置講座 • 國際센터設置講座	2531
	2522	研究會				
		經濟數學 謄記				
	2523	厚生經濟學 經濟學方法論 公共經濟學 產業組織論 近代經濟學史 代數學 解析學 I 解析學 II 市場의 計 量分析 數理經濟學特論(微分方程式論) 標本調查論 經濟發展論 計量經濟學方 法論 經濟資料論 國際金融統計	自 由 科 目	3909	48單位의 制限外에서 履修하는 下記設置의 授業科目 • 新聞研究所研究生으로서 履修하는 新聞研究所設置科目 • 教員免許取得을 為한 教職 教科課程授業科目 ¹⁾	3909

資料：慶應義塾大學 經濟學部, 『第3, 4學年 履修案內』, (1989)

註：1) 教職課程의 科目에 관해서는 「教職課程」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履修할 수 없다.

〈附表 2-1〉 京都大學 大學院 經濟學研究科 科目表

【理論經濟學，經濟史學系】

經濟原論特論	經濟原論各論	近代經濟學特論	巨視經濟學 I
巨視經濟學 II	微視經濟學 I	微視經濟學 II	數理經濟學
數理經濟學特論	統計學特論 I	統計學特論 II	經濟統計論
數理統計學特論	計量經濟學特論 I	計量經濟學特論 II	社會主義經濟學
經濟學史特論	經濟學史各論	近代經濟學史	社會主義經濟學特論
經濟學方法論	經濟哲學特論	社會科學特論	社會思想史特論
社會思想史各論	社會主義思想史	中國經濟思想史	日本經濟思想史特論
日本經濟史特論	現代日本經濟史	外國經濟史	外國經濟史特論
比較經濟史	經濟史方法論	貨幣論特論	日本經濟特論
金融經濟論 I	金融經濟論 II	產業聯關係論	產業組織論
地域計劃論	經濟變動論特論	Readings on Foreign Economic Affairs	練習

【經濟政策學系】

經濟政策原理	經濟政策論特論	工業政策論	工業政策論特論
農業政策論	農業政策論特論	農業經濟學	食糧經濟學
財政學	財政政策論	財政政策論特論	金融政策論
企業集中論	產業構造論	社會政策論特論	社會政策論各論
社會保障論	資金論	勞動組合論	世界市場論
世界經濟論特論	世界經濟論各論	日本貿易論	日本貿易論特論
國際貿易論	國際貿易論特論	國際金融特論	交通政策論
經濟立地論	農地政策論	社會的費用論	勞動經濟論特論
勞動經濟論各論	公共經濟學	公共經濟學特論	社會主義經濟學特論
計劃經濟論特論	公企業論	中小企業論	租稅論
經濟發展論特論 I	經濟發展論特論 II	練習	

【經營學系】

經濟組織論	產業組織特論	經營管理論	經營管理特論
生產管理論	生產管理特論	財務管理論	販賣管理論
販賣管理特論	經營史特論	財務會計論	財務會計特論
管理會計	管理會計特論	會計監查論	會計史
商業經營特論	貿易經營論	銀行經營論	交通論特論
都市經營論特論	保險論特論	公益事業論	經營科學
經營學史	日本經營史	外國經營史	人事管理特論
稅務會計特論	會計學史	貿易金融論	交通經營論
保險經營論	經營科學特論	組織經濟論特論	組織經濟論各論
國際貿易政策論	國際會計特論	情報處理特論	比較經營史
練習			

【現代經濟學系】

現代經濟學 I	現代經濟學 II	現代經濟學 II	政策科學特論
數理經濟學	數理經濟學 II	經濟分析論	日本經濟論
現代日本經濟史	應用經濟學	公企業論	日本經濟의 計量的分析
公共經濟學	公共經濟政策	統計學特論	日本經濟의 國際比較
計量經濟學 I	計量經濟學 II	計量經營學	比較經濟組織論
經營管理特論	理論經濟學	練習	

以上외에는 必要에 따라서 特定의 科目를 授業할 수 있다.

〈附表 2-2〉一橋大學 大學院 經濟學研究科의 授業科目

番號	修士課程		博士課程	
	理論經濟學 및		統計學專攻	
201	理論經濟學特殊問題		理論經濟學特殊研究	
202	數理經濟學特殊問題		數理經濟學特殊研究	
203	經濟計劃特殊問題		經濟計劃特殊研究	
204	公共經濟學特殊問題		公共經濟學特殊研究	
205	計畫經濟學特殊問題		計畫經濟學特殊研究	
206	經濟發展論		經濟發展論特殊研究	
207	國民經濟計算論		國民經濟計算論特殊研究	
208	金融經濟論特殊問題		金融經濟論特殊研究	
209	國際經濟學特殊問題		國際經濟學特殊研究	
210	社會主義經濟論特殊問題		社會主義經濟論特殊研究	
211	經濟學史特殊問題		經濟學史特殊研究	
212	社會主義古典資料論, 經濟思想史特殊問題		社會主義古典資料論, 經濟思想史特殊研究	
213	推測統計學		推測統計學特殊研究	
214	時系列論		時系列論特殊研究	
215	統計學特殊問題		統計學特殊研究	
216	經濟統計特殊問題		經濟統計特殊研究	
217	日本經濟統計資料論		日本經濟統計資料論特殊研究	
218	經濟數學特殊問題		經濟數學特殊研究	
219	計算機論特殊問題		計算機論特殊研究	
220	情報處理論		情報處理論特殊研究	
經濟史 및 經濟政策專攻				
251	經濟史基礎概念		經濟史特殊研究	
252	西洋經濟史特殊問題		西洋經濟史特殊研究	
253	東洋經濟史特殊問題		東洋經濟史特殊研究	
254	日本經濟史特殊問題		日本經濟史特殊研究	
255	日本經濟特殊問題		日本經濟特殊研究	
256	中國經濟特殊問題		中國經濟特殊研究	
257	南方아시아經濟特殊問題		南方아시아經濟特殊研究	
258	蘇聯經濟特殊問題		蘇聯經濟特殊研究	
259	美國經濟特殊問題		美國經濟特殊研究	
260	各國經濟思潮特殊問題(英美)		各國經濟思潮特殊研究(英美)	
261	各國經濟思潮特殊問題(獨)		各國經濟思潮特殊研究(獨)	
262	各國經濟思潮特殊問題(中國)		各國經濟思潮特殊研究(中國)	
263	經濟地理特殊問題		經濟地理特殊研究	
264	經濟立地論特殊問題		經濟立地論特殊研究	
265	環境經濟論特殊問題		環境經濟論特殊研究	
266	經濟政策特殊問題		經濟政策特殊研究	
267	貿易政策特殊問題		貿易政策特殊研究	
268	工業政策特殊問題		工業政策特殊研究	
269	農業政策特殊問題		農業政策特殊研究	
270	經濟開發論特殊問題		經濟開發論特殊研究	
271	勞動經濟論		勞動經濟論特殊研究	
272	財政學特殊問題		財政學特殊研究	
273	租稅論特殊問題		租稅論特殊研究	
274	地方財政特殊問題		地方財政特殊研究	
275	財政과 國民所得		財政과 國民所得特殊研究	

資料：一橋大學 大學院，『學生便覽・講義要綱』，1989。

〈附表 2-3〉 早稻田大學 大學院 經濟學研究科의 授業科目

課程、科目		理論經濟學、經濟史專攻	應用經濟學專攻
	研究指導	理論經濟學研究指導 經濟學說史研究指導 統計學研究指導 日本經濟史研究指導 西洋經濟史研究指導	經濟政策研究指導 國際經濟論研究指導 金融論研究指導 社會政策研究指導 財政學研究指導
修 士 課 程	授 業 目	理論經濟學研究 經濟學說史研究 經濟學研究 日本經濟史研究 西洋經濟史研究 理論經濟學特論 統計經濟學說史特論 統計學特論 計量經濟學 經濟統計特論 日本經濟史特論 日本經濟史史料講讀 西洋經濟史特論 西洋經濟史史料講讀 經濟地理特論	經濟政策研究 國際經濟論研究 金融論研究 社會政策研究 財政學研究 經濟政策特論 應用經濟學特論 國際經濟論特論 金融論特論 國際金融論特論 勞動經濟論特論 社會保障論特論 財政學特論 地方財政論特論 人口論研究
	共 通 課 目	英美經濟學文獻研究 프랑스經濟學文獻研究 獨逸經濟學文獻研究 리시아經濟學文獻研究 日本經濟研究 美國經濟研究 유럽經濟研究 蘇聯經濟研究 中國經濟研究 東南아시아經濟研究 經濟數學研究	英美經濟學文獻研究 프랑스經濟學文獻研究 獨逸經濟學文獻研究 리시아經濟學文獻研究 日本經濟研究 美國經濟研究 유럽經濟研究 蘇聯經濟研究 中國經濟研究 東南아시아經濟研究 經濟數學研究
博士後期課程	研究指導	理論經濟學研究指導 經濟學說史研究指導 統計學研究指導 日本經濟史研究指導 西洋經濟史研究指導	經濟政策研究指導 國際經濟論研究指導 金融論研究指導 社會政策研究指導 財政學研究指導

資料：早稻田大學 大學院 經濟學部研究科 講義要項，(1989)

〈附表 2-4〉 慶應義塾大學 大學院 經濟學研究科의 授業科目

	修士課程		博士課程	
理論 經濟 學 專 攻	理論經濟學 I	理論經濟學 II	理論經濟學	理論經濟學練習
	理論經濟學 III	理論經濟學練習	計量經濟學	計量經濟學練習
	理論經濟學特殊研究	計量經濟學	統計學	統計學練習
	計量經濟學練習	統計學	財政論	財政論練習
	統計學特殊研究	統計學練習	金融論練習	社會思想論
	財政論	財政論練習	社會思想論練習	經濟學史
	金融論	社會思想論	經濟學史練習	經濟思想史
	社會思想論練習	經濟學史		
	經濟學史練習	經濟思想史		
經濟 史 專 攻	西洋經濟史	西洋經濟史特殊研究	西洋經濟史	西洋經濟史練習
	西洋經濟史練習	日本經濟史	日本經濟史	日本經濟史練習
	日本經濟史練習	古文書練習	社會史	社會史練習
	社會史	社會史特殊研究		
	社會史練習			
經濟 政策 專 攻	經濟政策論	經濟政策論練習	經濟政策論	經濟政策論練習
	財政政策論	農業經濟論	農業政策論	農業政策論練習
	農業經濟論練習	工業經濟論	工業政策論	工業政策論練習
	工業經濟論練習	商業經濟論特殊研究	勞動經濟論	勞動經濟論練習
	日本經濟論	日本經濟論練習	國際經濟論	國際經濟論練習
	勞動經濟論	勞動經濟論練習	經濟地理練習	
	勞動經濟史研究	社會政策論		
	國際經濟論	國際經濟論練習		
	國際政治經濟論	經濟地理		
	經濟地理練習			

資料：慶應義塾大學 大學院 經濟學研究科，『講義要綱』，1989。

参考文獻

- 降旗節雄,『解體する宇野學派』,論創社, 1983.
- 高須賀義博,『マルクス經濟學の解體と再生』,お茶の水書房, 1985.
- 根岸隆・山口重克 編,『二つ經濟學一對立から對話へ』,東京大學, 1984.
- 大内力,『日本經濟論(上卷)』,東京大學出版會, 1962.
- 浜田宏一,「日本の社會科學研究のどこが問題か一日米教育・研究の體驗的比較からー」,『經濟セミナー』1988, 11.
- 東京大學,『東京大學百年史』,東京大學出版會, 1985.
- 小山弘健,『日本資本主義論争史(上・下卷)』,青木書店, 1954.
- 岩田弘,『世界資本主義』,未來社, 1964.
- 歴史科學協議會編,『日本資本主義と農業問題』,校倉書房, 1976.
- 玉野井芳郎,『日本の經濟學』中央公論社, 1974.
- 宇野弘藏,『經濟原論(上, 下)』,岩波書店, 1950.
- _____,『經濟學方法論』,東京大學出版會, 1962.
- 宇澤弘文,「問われる現代の經濟學」,『エコノミスト』,1972.1.4.
- _____,『經濟學の考え方』,岩波書店, 1988.
- 伊藤誠,「マルクス經濟學・その新たな可能性を探る」,別冊寶島 82『經濟學入門』,JICC 出版局, 1988(a).
- _____,「現代經濟の基本問題と經濟學教育」,經濟學教育研究會,『經濟學教育』第 7 號, 1988(b).
- 齊藤精一,「混迷と不毛の中を摸索する二桁世代の經濟學者達」,『朝日ヅヤナル』,1980.10.1.
- 早坂忠・正村公宏,『戰後日本の經濟學』,日本經濟新聞社, 1974.
- 中村達也,「『周縁』からの六つの批判的メッセージ」,『經濟學入門』,JICC 出版局 '1988.
- 置鹽信雄,『マルクス經濟學』,筑摩書房, 1977.
- 八尾信光,「經濟學研究の現状について」,『經濟』,1986.4.
- 平田清明,『市民社會と社會主義』,岩波書店, 1972.

〈討 論〉

金都亭博士*의 論評

마르크스經濟學에 傾斜되고 있는 本論文이 看過하고 있는 몇 가지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첫째, 日本의 經濟學과 日本的 經濟學을 여하히 定義할 것인지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日本의 경우, 輸入經濟學이라는 사실은 「마루깨이」든 「강깨이」든 마찬가지이며, 經濟學과 經濟學者의 役割을 노벨經濟學賞 授賞者數가 아닌, 결국 自國經濟發展에 대한 寄與度로 판단한다면 日本만큼 經濟學과 경제학자의 공헌이 커던 國家도 드물 것이다.

周知하듯이, 日本의 經濟發展은 「官民協調」라고 하는 資本主義特有의 메카니즘下에서 가능했다. 이러한 誘導的 經濟計劃의 初期부터 금일에 이르기까지 소위 『白書』라고 하는 經濟現象分析과 비전을 손수 作成하고, 각종 審議會에 적극 참여해 온 것은 다름아닌 日本的 經濟學者들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戰前, 戰後經濟復興·安定期에 적어도 學部에서 마르크스經濟學 授業을 받은 「강깨이」들이며, 이는 學界, 業界, 官界, 勞動界, 消費者代表들에 공통된 현상이다.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에도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本論文의 「마루깨이」, 「강깨이」의 구별은 적어도 日本的 經濟學을 論議함에 있어서는 적절한 認識方法이라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學界가 業界·官界와 더불어 적어도 「강깨이」의 分析道具와 專門用語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經濟發展經驗은 이제 日本的 經濟學으로서의 產業政策理論으로 具體化되기에 이른다. 이를 위해 적어도 戰後經濟發展의 세월만큼은 固有의 것을 창출하려는 經濟學者들의 즐기찬 노력이 집중되어 왔으며, 이제 理論의 輸出까지도 고려할 정도로 자신을 갖기에 이르렀다.

둘째, 戰時體制下에 彙壓을 받아오던 「마루깨이」들이 戰後, 大學復歸가 용인되고 자유로운 연구활동이 보장되면서 經濟學界는 東京大學을 중심으로 한 「마루깨이」(宇野, 有澤, 美濃部 教授 등)와 一橋大學의 「강깨이」(中山·大川·篠原 教授 등)가 兩大主流을 이루게 된다.

1955~1965年の 高度成長 前期동안 「마루깨이」·「강깨이」의 對立의 주요쟁점이었던 二重構造가 해소되어 가면서 「마루깨이」는 서서히 退潮되어 왔다. 그러나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그들의 경제구조에 대한 事實認識方法과 平等理念自體는 오늘날까지도 日本經濟의 發

* 産業研究院 日本室長

展經驗 속에 그대로 살아 있다.

이리한 「마루깨이」의 形式的인 退潮를 촉진, 「깅깨이」의 分業을 가능케 한 것이 다름아닌 一橋大의 『長期經濟統計』이다. 이는 日本經濟가 겨우 戰前水準에 도달하게 되는 1953年, 당시 文部省의 300만엔(지금은 3억엔 정도) 지원하에 明治 이후 100년간의 日本經濟의 發展機構를 해명하는 데 필요한 각종 統計作業을 총괄하는 것이다. 紙面制約으로 소상하게 소개 할 수는 없으나, 日本的 經濟學의 育成・發展을 위한 기념비적 업적으로 이제는 日本經濟學界의 共通財產이 되고 있다. 本作業이 1988年 14卷 完刊으로 終了되기까지, 一橋大學은 물론 近經 全員이 동원되었으며, 작업시작과 동시에 당시 助教로 채용되었던 研究者가 백발의 老教授로 停年할 때까지 劃期的인 저작이 속출했고 갖가지 學問의 論爭이 유발되었다.

당초 國民經濟計算體系에 기초한 本作業의 中間成果는 경제이론으로 피드백되고, 새로운 理論體系下에 統計整備가 행해지는 등 理論과 實證간의 끊임없는 피드백이 經濟學發展의 生命源임을 실감케 했다. 이후 日本經濟學은 京都大・大阪大 中心의 모델作業, 東京大一部, 慶應義塾의 理論分析으로 分業, 相互補完함으로써 「마루깨이와 깅깨이의 無交流」下에서도 「깅깨이」내의 交流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세째, 上記와 같은 日本的 經濟學의 기초가 다듬어지기 시작한 것은 擬似血緣集團으로서의 세미나라고 하는 垂直의 特殊研究組織의 효율성에 기인한 바 크다. 이는 세미나間의 자유로운 移動보다는 하나의 특수조직 내에서의 長年に 걸친 전문성의 수련을 選好해 온 때문이다. 이러한 研究組織이 갖는 폐쇄성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동안 그룹내 核心研究人力의 國內外 유학・연수를 통해 상당부분 해결해 온 것도 또한 사실이다. 최근 석사・박사과정에서 本大學보다 他大學 출신자가 많아지는 등 學士運營을 어느 정도開放하려는 것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진학자를 중심으로 한 學際研究와 세미나의 벽을 넘어, 美國式의 횡단적 연구조직의 利點을 살리려는 시도가 엿보이고 있다. 이는 日本的 經濟學의 特殊性을 보편화시켜, 日本經濟學으로 승화시키려는 日本研究者の 생애를 건 노력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이를 단순히 輸入으로 몰아부칠 성질의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李鍾允教授*의 論評

朴교수의 「日本의 經濟學研究」에 對한 전반적인 인식은 대체로 그 맥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日本의 經濟學研究」에 끼친 영향도 내지는 研究業績의 상대적 비중에

* 韓國外國語大學校 貿易學科 副教授

대한 評者나름의 인식을 바탕으로 몇 가지 論評을 加하고자 한다.

1) 日本經濟가 기본적으로 資本主義的 發展方式을 채택하여 그 成功的인 결과가 의미해 주고 있는 바와 같이 「日本의 經濟學研究」에서 占하는 非마르크스的 經濟學研究業績의 比重이 특히 2次大戰 以後에 있어서는 마르크스經濟學에 對한 研究에 比해 월등하게 큰 것으로 認識하고 있는데, 그 點에서 著者は 日本에서 마르크스經濟學의 研究比重을 너무 과대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느낀다.

2) 日本의 經濟運營方式은 엄격한 의미에서 순수한 資本主義的 方式이라고 보기 어렵고 個別經濟單位는 거대한 國民經濟의 一部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각각의 經濟主體는 상호간에 밀접한 유기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日本의 經濟學研究」에는 사실상 獨일 歷史學派의 영향이 큰 비중을 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著者は 이 部分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느낀다.

3) 일본의 全 學問領域에 걸쳐 그러한 특징이 지적되는 바와 같이 經濟學研究에 있어서도 순수이론보다는 導入된 理論의 消化와 그에 입각한 「자국경제에의 應用」에 관한 연구가 압도적 비중을 占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本論文에서는 그러한 認識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나아가서 研究方法의 高度의 「分業化方式」을 그들의 研究特徵으로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

「日本의 經濟學教育」에 관해서도 몇 가지 著者の 論述에 對한 补完的인 コメント를 加하고자 한다.

1) 그들의 세미나式 經濟學教育의 비중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1, 2學年の 교양과정을 마친 후에는 경제학 전반에 걸친 소정의 學點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정專攻 지도교수 밑에서의 그 專攻을 중심으로 하는 研究活動이 큰 比重을 占하도록 되어 있으며 나아가서 이 點은 그들의 人的組織화와도 관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의식구조면에서 「日本의 經濟學」을 주입하도록 하는 강한 原則을 확립하고 있는 것 같다. 즉 博士過程에 관한 한 어느 대학에서나 開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고, 일정한 要件을 갖춘 大學에서만 開設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大學敎職은 기본적으로 日本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외유학을 내 보내는 경우에도 최소한 日本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명확한 연구과제를 가지고 나가게 함으로써 의식의 海外化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 같다.